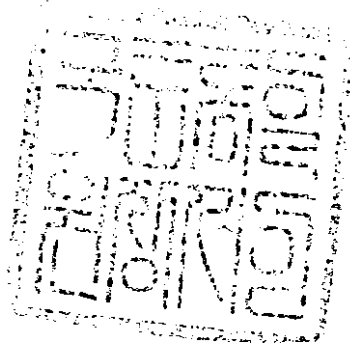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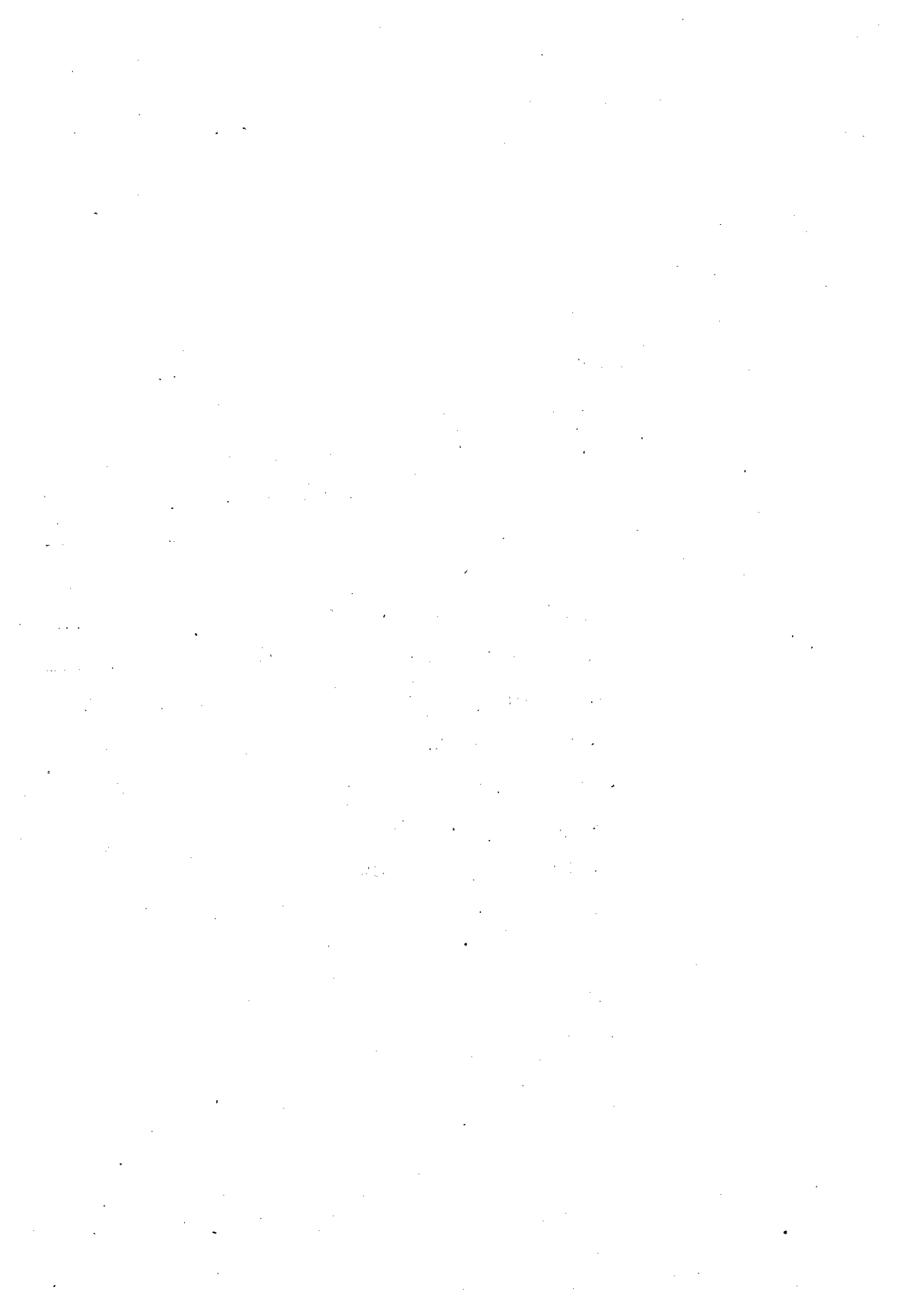


연구기관 : 한국투자개발공사

연구책임자 : 이 만 기

目 次

1 . 最近 国济 經濟 動向 과 主要 問題点	3
가 . 石油 波動 과 資源 내셔날리즘	3
나 . 資源 總會 와 第 3 世界	8
다 . 國際 通貨 改革 의 問題	10
라 . 新 保護 貿易 主義 와 貿易 共同 體	22
마 . 東西 經濟 交流	26
2 . 새로운 國際 經濟 秩序 의 展望	31
가 . 資源 經濟 의 新 戰略	31
나 . 國際 通貨 改革 의 方向	39
다 . 保護 主義 및 地域 主義 의 傾向 과 GATT 體制 의 進路	45
3 . 國際 情勢 의 變化 가 南北 韓 經濟 에 미칠 影響 과 對策	49
가 . 韓國 經濟 와 資源 問題	49
나 . 資源 問題 에 對한 南北 韓 의 立場	61
다 . 國際 經濟 動向 과 南北 韓 關係	68



1. 最近國際經濟動向과 主要問題點

가. 石油波動과 資源내셔널리즘

최근 世界經濟에 있어 가장 충격적이었고, 또한 世界經濟秩序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다시피 한 사건은 73년 10월 第4次中東戰爭과 石油波動이다. 73년에 들어 미국경제를 비롯하여 世界的으로 資源問題가 서서히 대두될 무렵 石油를 武器로 하는 第4次中東戰爭의 重圧이 가해져 石油는 勿論이며 資源全般에 걸친 危機의 樣相이 짙어진 것이다.

74년에는 과거에 듣지못하던 몇가지의 新用語가 콜로즈 업되었다. 全世界的인 인플레이와 不況을 상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오일달러, 資源내셔널리즘, 多國籍企業 등의 새로운 用語이다. 이 모두가 石油波動과 관련되고 있으며, 世界經濟全般에 걸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論議를 생략할 수 있다해도, 오일달러, 資源내셔널리즘은 구체적인 論議를 생략할 수 없다. 오일달러는 다음項에서 검토할 國際通貨의 改革에 대해서도 壓力을 가중하고 있으며, 資源내셔널리즘은 本項에서도 중점적으로 論議되어야 할 과제이다.

資源問題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自由世界와 共產國 등에 있어 利害를 달리 하면서도 궁극에 있어서는 國家利益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資源내셔널리즘으로 転落되었다. 과거에 모든 經濟問題는 利害를 같이 하는 集團과 달리하는 集團과의 對立이 明白하였고 따라서 世界經濟의 問題는 크게 東西問題와 南北問題로 나뉘었으며

그중에서도 南北問題만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資源에 관한한 東西와 南北이 利害의 對立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궁극에 있어서의 國家利益의 追求가 중요시 됨으로서 共同利益集團이 互解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더우기 지금까지는 西方世界에 있어서 미국의 役割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 자신도 資源내셔널리즘에 例外的일 수 없는 立場으로 轉落됨으로서 資源不足한 開發途上國에 대해 커다란 문제를 이르켰다.

사실상 제 4 차 中東戰爭이 있기 전까지는 石油가 低價로 大量供給되었고 다른 資源들도 慢性的인 過剩供給狀態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石油波動이후 世界資源供給構造는 급격한 送轉을 보였고 이를 前後로한 資源내셔널리즘의 激化는 全世界的인 인플레이와 景氣沈滯, 資源輸入國의 國際收支의 惡化와 國際通貨波動 나아가서는 保護貿易主義의 強化等 一聯의 問題를 일으키고 國際經濟秩序의 새로운 동요를 유발한 것이다.

그동안의 慢性的 資源供給過剩속에 浪費되다싶이한 資源消費의 餘裕가 급격히 資源내셔널리즘화하여 資源不足問題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되기로 하나 근본적으로는 그동안의 資源供給過剩 그 자체에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資源이 근본적으로 풍부하여 過剩供給되었고 현재의 資源問題는 政治的인 또는 그밖의 다른 이유로 資源내셔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資源供給을 人爲的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긍정적인 結

論을 지을 수 없다.

資源이 비록 偏左되어 있을망정 전체적으로는 世界的으로 풍부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資源經費의 추세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는 의문되리만큼 資源消費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다. 1920년부터 1969년까지 50년동안 資源消費의 추세를 볼때 石油는 22배, 알루미늄은 57배, 니켈은 16배, 그밖의 鉄鉍石, 銅, 亞鉛, 石炭 등도 6~7배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더우기 先進國의 重化學工業의 深化와 開發途上國의 工業化가 進展됨에 따라 世界資源의 需要가 얼마나 크게 늘어날 것인가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1970년대의 資源消費의 推計는 60년대의 必要했던 資源消費에 비하더라도 鉄鉍石이 1.5배, 非鉄金屬은 1.8배 石油는 2.2배에 달할것으로 보고 있다.

勿論 資源需要推計는 經濟成長의 속도, 産業構造變化의 方向, 資源代替의 技術開發등 資源需要에 영향을 주는 要因들이 너무나 多樣하기 때문에 予測이 힘든것이기is하나 아무튼 資源需要의 위와같은 현저한 增加趨勢에 비추어 資源不足問題는 早晚間에 抬頭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더우기 世界의 資源供給構造가 갖는 本質的인 여러 制約要因; 첫째 資源의 有限성과 偏在, 둘째 大資本에 의한 資源의 寡占的供給體制 세계 資源保有國의 資源내셔널리즘등에 의하여 資源問題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石油波動에 있어서도 資源내셔널리즘과 資源의 寡占的供給

1970年代의 世界資源需要推計

<表1>

	1960年代의 消費 実績	1970年代의 消費 推計	70年代 60年代
鉄鉍石 (百万屯)	5,813	8,857	1.5
非鉄金屬 (千屯)	198,712	350,497	1.8
銅	58,536	88,754	1.5
鉛	31,337	45,796	1.5
亜鉛	39,463	63,650	1.6
錳	4,025	7,345	1.8
알루미늄	65,351	144,952	2.2
石油 (百万kl)	17,861	38,500	2.2

資料：日本通産省，資源問題の 展望，1971.

者의 황포중 어떤 것인지 분간할수 없는 요인들도 있었으나 궁극에 있어 資源輸入國에게 주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한때 供給者(메이커)의 장난인것처럼 世界的으로 풀이되기도 했으나 資源내셔널리즘의 抬頭는 분명한 사실이다.

資源내셔널리즘의 歷史的背景은 20世紀初에 소급할수 있다. 최초로 外國資本의 資源支配에 대한 내셔널리즘을 주장한 것은 라틴아메리카, 그중에서도 멕시코였다. 1911년 멕시코 革命을 계기로 일어난 資源내셔널리즘은 1917년 「地下資源은 國家의 所有이다」

라는 思想을 憲法에 導入시켰고 1938년 칼데나스大統領下에서는 國營石油会社(PEMEX)를 창설하였다.

1920년 베네주엘라에서도 石油法을 制定하여 外國人의 投資에 대해 探査稅, 採探稅등을 부과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2次大戰中인 1943년에는 石油産業에 대한 國家의 公正한 參加를 기도한 新石油法을 制定하였다.

2次大戰後에는 自由貿易主義의 抬頭에 따라 資源내셔널리즘이 後退하는것같이 보였으나 本質的으로 자취를 간춘것은 아니라 自由貿易主義와 保護貿易主義, 또는 世界主義와 國家主義의 思想과 政策의 내용은 貿易政策의 항목에서 다시 언급하겠으나, 아무튼 國家 또는 福利經濟와 軍國主義가 2次大戰의 悲劇을 이르켰던 것을 體驗했던 各國은 戰後 世界經濟秩序의 回復에 있어 自由貿易主義(勿論 共產國만은 제외한다)를 支配적으로 채택하였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資源내셔널리즘의 思想을 完全히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一般的으로 1950年代에서 .60年代에 이르는 동안의 資源保有 開發途上國들의 資源내셔널리즘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色을 지 持할 수 있다.

첫째, 資源收入增大要請과 함께 점차 資源産業에 대한 資本參加 또는 全面的인 國有化등 經營面의 關心이 높아졌다.

둘째 外國資本에 대해 이를 인정한다 해도 課稅의 대상이 되는 價格政策에 직접 干渉하거나 資源開發에 있어서의 工業化 또는 地域開發등을 外國資本에 要請한다.

세계 위와같은 資源産業 그 자체의 經營이나 餘地의 工業化 및 地域開發을 要請함에 있어 資源保有 開發途上國들은 相互間的 協調 와 團結을 통하여 그 目的을 貫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위와같은 움직임은 思想的으로 「天然資源의 恒久主權」이라는 論議를 UN에서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며 開發途上의 資源保有國들의 실질적 團結은 OPEC나 CIPEC 등의 설립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들어냈다. OPEC는 1960年 9월에 설립된 石油輸出國機構를 말하며 그후 OAPEC (아랍石油輸出國機構)가 다시 설립되었다.

CIPEC는 1968년에 설립된 銅輸出國政省間 協議會이다. 이들의 機構는 원래 資源價格에의 干여를 目的으로 했던 것이나 최근에는 보다 광범위한 資源내셔널리즘의 수행을 主導한 것이다. 서두에 언급한 中東戰爭과 石油波動도 OPEC 加盟國과 國際石油資本間의 價格에 대한 교섭을 둘러싸고 드디어는 資源내셔널리즘史上 최대의 사건인 石油凍結사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OPEC의 資源내셔널리즘은 그 目的이 단순히 資源主權이라는 經濟的側面에만 그치지않고 政治, 軍事, 經濟의 全面的인 目的을 위해 利用되었음이 特記할만하여 이로서 資源내셔널리즘은 극에 달한것을 느끼게 한다.

나. 資源總會와 第3世界

74年 4月 9日부터 열린 UN의 資源特別總會는 予定을 3일 연장하여 23일에 거친 심의끝에 「新國際經濟秩序」와 「特別對策

을 포함한 行動計劃」을 채택하고 약속을 내렸다. 이 總회는 20餘年에 거친 UN에 두가지 점에서 새로운 歷史를 전개시켰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첫째는 非同盟 77個國그룹의 要請으로 總회가 열렸고 第3世界라는 開發途上國이 團結에 의하여 先進國에 대한 要求를 관철했다는 점이다. 開發途上國들은 先進國의 바라는대로 資源保有國과 非保有國이 分裂되지않고 統一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에 반하여 先進國들은 國聯이 超強大國이 지배해온 기관이라고 생각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되어 第3世界의 힘앞에 相互分裂까지 노출시켰다.

UN이 先進國의 主導에 의해 역할하는 시대는 지나고 世界人口의 圧倒的比重을 차지하는 第3世界가 主導하는 기관으로 變質하려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第3世界가 先進國을 물리치고 UN의 主導權을 爭탈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나 점차 國際적으로 壓力을 加重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점은 GATT와 UNCTAP의 문제에 관련하여서도 다시 언급할 수 있겠다.

둘째는 UN이 東西問題가 中心이 되던 時代로 부터 南北問題를 主題로 하는 時代로 突入하려 한다는 것을 들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資源總회의 개최의 주요목적은 石油波動이후 産油國에 대한 對항조치로서 미국이 消費國會議를 소집한데 자극을 받아 資源保有國의 입장을 오직 開發途上國이라는 점을 내세워 非保有國에게 설득하고 단결시켜 보려는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資源非保有國인 경우 先進國보다도 더 打撃이될 開發途上國이 오

직 開發途上國이라는 同類項때문에 保有國의 횡포(?)적인 資源내
셔날리즘에 동조하고 단결을 과시했다면 이는 극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는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을 것이다. 勿論
OPEC 등 產油國들은 뒤에 언급될 오일 달라를 非產油開發途上國
에 還流시키겠다는 것을 미끼로 第3世界의 勢力形成에 同調할 것
을 說得할 수도 있었다.

아무튼 評價하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나 資源總會는 많은 曲
折을 거치면서 「國際經濟의 新秩序를 위한 目標」을 채택하고 「行
動計劃」도 같이 성립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資源내셔날리즘의 궁극의 표현인 天然資源에 대한 恒久主
權의 문제는 國有化補償을 마음내키는대로 하려고 國內法에 의한다
는 当初의 案은 先進諸國의 強力한 反對에 부닥쳐 修正되었다. 즉
國有化의 補償을 國內法에 의해서 決定한다는 当初의 原案은 抽象
時으로는 國有化의 權利 및 所有權을 自國民에 이전하는 權利가 國
家主權의 表現이라고 하는 식으로 資源主權에 대한 대한 막연한
해석에 그치고 말았다.

뿐만아니라 역시 表現이 당초의 原案보다 부드럽게 修正되기는
하였으나 先進國製品價格과 途上國輸出品의 價格의 公正한 關係의
수립문제와 主要1次產品의 生産者同盟을 結成하여 強化한다는 것들
이 모두 当初案보다는 抽象化되었으나 이러한 것들이 提起되고 抽
象的이나마 어떤 結論을 맞췄다는 것이 資源總會의 결과 무시할수
없었던 점이다.

아무튼 資源總會는 天然資源을 비롯한 途上國生産의 1次産品에 대하여 資源國有化, 生産者同盟, 先進國製品과의 公正한 價格關係등을 들고 나왔음이 注目할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表面上 人口가 많은 途上國의 입장을 先進國의 입장에 비교하여 강조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것 같으면서 그보다도 이러한 主張들이 國際적으로 社會主義 國家들의 主張이나 利害에 상당한 근사점이 있으며 이로서 國際間에 있어서의 社會主義國들의 영향을 크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음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73年9月 알제리 革命評議會議長 부에젠이 第4回 非同盟國首腦會議에서 연설한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基調報告라고도 할수 있는 演說에서 『戰後 20年の 歷史를 통하여 豊요한 國家는 점점 더 豊요해지고 開發途上國은 점점 貧困해졌다』는 지적과 『이것은 現存의 世界經濟秩序가 그와 같이 만들었으며 그 發生根源은 植民地主義制度和 마찬가지로 不正하고 時代에 늦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開發途上國에 대한 先進國의 開發援助戰略은 그들의 意志에 의해 失敗로 끝났으므로 途上國은 自己의 資源을 動員하여 自己의 손으로 經濟發展을 實現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의 思想的背景을 음미할때에 충분히 알수 있다.

결국 資源總會도 社會主義的 냄새로 갈색된 總會이었고 이는 최근 UN에 있어서의 中共의 登場등과 함께 現實主義의 背後에 숨어있는 共產黨들의 戰略과도 無關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이번 資源總會에 있어서는 第3世界라는 美名下에 左翼民族主義國家구룹의 主導權을 離立하려는 것이다. 부메젠議長은 資源總會에 앞서 3월에 파키스탄의 라홀에서 37個國의 出席을 얻은 回教首腦會議에서의 演說의 骨子에 대해 贊同을 얻었으며 다시 中共과 南北越南에 까지 손을 뻗쳐 아시아社會主義國들의 首腦들과도 資源總會에서의 意思統一에 관한 事前動作을 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용의 주도한 準備工作과 意思統一을 바탕으로 부메젠의 演說은 77個國구룹의 支持를 얻게 되었으니 결국 資源總會는 共產國이 主導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으며 이점이 우리로서는 또한 重要視해야 할 점이다.

資源내셔널리즘은 한편으로 資源國의 團結과 이에 非保有 開發途上國을 포섭하여 世界經濟의 새 조류를 형성하려는 것이 있으나 國庫의 背後에는 開發途上國을 主軸으로 社會主義路線의 實現을 企圖하고 있다는데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東西問題가 上揚되고 南北問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現代의 世界問題는 그 南에 해당되는 開發途上國을 東에 해당되는 左派가 主導하게 된다면 결국은 새로운 東西問題라고 해석 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西의 입장에서는 보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勿論 資源總會가 구체적으로 어떤 結論을 내린것은 없다. 決議의 內容이 發展國들에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歷史的 意義를 강조해 보아도, 그것은 現實化될수 없는 空文에 끌리고

말았음은 다른 여러 高尚한 國際會議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歷史의 쓰레기 통속에 버려짐으로서 끝나고 만다는 것이 評論家들의 의견이다. 사실에 있어 總會에서 35개국의 先進국이 留保演說을 행했다는 것도 決議의 具體化에 대해 消極的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資源總會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經濟的으로 전혀 목살 될 수는 없는 요인도 많다. 開發途上國들은 현실적으로 石油波動 이후 폭등하는 輸入品の 인플레이, 國際收支의 赤字의 累積등 加速化되는 惡化에 견디기 어려우며 이러한 사태에 대해 先進國의 적절한 対応이 없이는 1次產品의 價格引上등 生産國同盟의 結成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6월에 열렸던 海洋法會議도 資源總會에서와 같은 先.後進國間的 攻防戰을 予想했었으나 생각했던 것 보다는 조용히 넘어갔다. 그러나 8월의 世界人口會議, 11월의 世界食糧會議등 一聯의 國際會議들은 어떻게든지 얼버무려서 現狀維持를 계속하려는 先進國에 대해 開發途上國의 攻擧를 위한 團結을 호소하는 會議로 一貫될 것이다. 資源總會 그 자체가 現實的으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先進國과 利害를 달리 하는 開發途上國을 제속해서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否認할 수 없다. 다만 그 團結이 結實되지 못한것은 資源保有國과 非保有國의 利害와 感情의 對立등 現實的인 理由와, 團結의 主導權을 쥐려는 社會主義國의 政治的利用目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 國際通貨改革의 問題

國際通貨의 문제는 두가지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는 IMF 体制의 근본적인 矛盾點과 이리한 1969 년이후의 各國의 通貨波動이며, 둘째는 石油波動이후 產油國의 급격한 國際收支增加와 外貨保有의 增加, 石油消費國의 급격한 國際收支赤字와 外貨保有의 激減이 초래한 새로운 問題이다. 다시 말하면 國際通貨問題는 石油波動이후 二重의 問題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IMF를 중심으로한 지금까지의 國際通貨体制는 1944年7月1日 부레튼. 우즈 (Bretton woods) 협정에 의하여 設립된후 4半世紀 동안 各國間의 通貨協力을 통하여 世界貿易의 擴大와 나아가서는 世界經濟의 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60 年대에 들어 世界經濟의 構造的變化를 반영하여 유럽의 主要通貨가 交換性을 회복한 후 強勢를 보이는 반면 미국의 달러는 國際收支赤字의 累增으로 國際通貨로서의 信認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IMF 体制의 根本的인 矛盾點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1969 년부터는 여러차례의 通貨波動을 겪게 한 것이다.

1971 年 5 月에는 달러貨의 金兌換停止 유럽主要國通貨의 變動換率制로의 移行등 IMF 体制의 根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同年 12 月 달러의 7.89% 平価切下(금 1 온스당 35 달러에서 38 달러로), 金價格의 8.57% 引上, 센트럴, 레이트 (Central rate) 에 의한 各國平価의 再調整, 換率變動幅 上下 2.25%의 와이드, 마진 (Wider margins) 制 採択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이른바 스미소니언(Smithsonian)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후에도 1973년초에 또다시 國際通貨波動을 거쳐 同年 2월 달러를 다시 10% 平価地下(金 1 온스당 38 달러에서 42.22 달러로)와 유럽主要國 및 日本의 変動換率制가 실시되었다.

위와같은 國際通貨危機의 조성은 대체로 네가지 이유에 기인된다. 첫째는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IMF体制의 근본적 支柱가 되는 미국의 국제수지가 계속 赤字에 있고 이로인해 달러供給이 過剩이 빚은 달러貨의 不安定이다. 이에 대해서는 本研究의 主目的이 아니므로 깊이 分析하지 않겠다. 특히 1974년 부터는 石油波動後 미국의 國際収支가 오히려 黒字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주요성은 달라지고 있다. 둘째는 유럽通貨의 強化와 유로달러의 換投機가 國際通貨의 不安을 加速化시켰다. 유럽주요국의 經濟力蓄積으로 過剩달러를 獲得한 것이 國際流動性供給의 源泉을 이룬 것을 유로달러라고 부른다. 이 유로 달러의 규모는 8~9 백억달러로 추산될만큼 그 규모가 막대하여 이는 한편으로 國際貿易增大에 기여하고 있으나 반면에 短期的인 換投機資金의 源泉으로 역할하여 國際通貨의 不安을 加速化시키고 西歐諸國에 高金利를 과 급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세째로 多国籍企業의 投機的인 資本移動이 換投機의 主役을 하였다. 이를 多国籍企業은 그들의 營業과 投資活動을 위하여 巨額의 外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平価變動으로 인하여 保有外貨의 換差損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各國의 通貨情勢에 관한

情報을 수집하고 外貨포지션을 조정하고 있다.

이것이 나아가서는 換差損의 防止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換差益을 추구하기 위한 投機의 主役이 되는 機會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多国籍企業들은 그들의 換投機에 대하여 保有外貨의 減價를 막기 위한 防衛措置에 불과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과연 防衛나 換差益取得을 위한 것이냐는 분간할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産油國의 急激한 外貨資産增加와 이른바 오일·달러의 형성이다. 産油國들은 巨額의 外貨資産을 거의 대부분 유럽諸國의 銀行에 예치해두고 있는데 이 資金은 通貨不安이 일어나면 多国籍企業의 資金에 加勢하여 投機의 源泉으로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일·달러는 投機에 쓰여지지 않는다해도 그 오일·달러가 커진만큼 石油消費國의 달러支出이 증대되므로 國際通貨保有의 不均衡의 요인이 됨으로서 國際通貨의 不安을 조성하는 것이다.

오일, 달러가 換投機에 가세된 것은 73년봄 유럽換市場에 1일에 35억달러라던 巨額의 달러売却이 쇄도됨으로서 國際金融市場을 混亂에 빠뜨린 후에 유명해졌다.

그러나 이때만해도 通貨投機에 사용된 오일·달러의 規模는 떠들석했던것 보다는 적었으며 역시 多国籍企業이 主役이고 오일·달러는 端役정도의 存在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도 못된 74년초에 이르러서는 오일·달러는 世界의 先進工業國을 마음대로 요리할만큼 커다란 壓力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역시 73년 10월 石油波動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石油價格을 세 번이나 오른 후 1년 동안에 무려 4배가 되었으므로 오일 .달러의 急增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中東과 北아프리카 6 個國을 보면 外貨準備高가 71년에 61억달러, 72년 80억달러, 73년 102억달러이었으나 74년 말에는 420~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며 이는 종전의 유로 .달러 800억 규모의 過半에 해당하는 규모인 것이다.

더우기 아랍地域의 特色은 個人 또는 몇몇 사람에게 의하여 國家의 意志가 決定된다는 点에서 유로 .달러보다도 월등히 무서운 힘을 保有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때 先進國를 이 오일 .달러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로 .달러市場의, 800억중 150~200억달러는 中東諸國의 王族이나 富者의 資金이라고 한다. 이 資金이 石油收入의 격증으로 74년에는 4~5백억이 될 것으로 推算되고 있으며 그것이 數千 數萬의 사람들이나 企業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한손에 강악한 사람들에 의해 左右되는 것이다. 이는 中東戰때는 石油를 武器化했던것 처럼 이제부터는 오일 .달러를 武器로 世界經濟를 뒤흔들수 있는 立場에 놓인 것이다.

반면에 오일 .달러의 팽창은 石油輸入國에게는 그대로 支払代金인 것이다. 미국의 石油아커너미스트 레비氏의 추계에 의하면 74년의 石油輸入國의 支払은 西歐가 500억달러 (72년 실적 110억달러) 미국이 200억以上 (72년 45억달러), 日本이 170억달러

(72년 36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OECD의 조사에 의하면 74년에는 73년실적에 비해 미국과 日本이 다같이 91억달러씩 石油代金の 増加를 보일 것이다. 이러한 支払負擔의 激增은 國際收支의 惡化를 초래케 한다. 따라서 OECD는 美國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主要工業國의 經常收支赤字가 74년중에 크게 擴大될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 즉 日本의 59억을 필두로 영국 51억, 프랑스 35억, 이탈리아 34억 西歐 24억의 赤字를 予告하고 있다.

만일 國際收支가 위와같이 惡化될 때에는 国内的으로 緊縮政策을 쓰지 않을 수 없다. 世界經濟의 不況이 오래 계속되는 것도 先進國의 이러한 緊縮政策의 지속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 20國國財相會議에서도 많은 대표들이 世界總不況의 危險을 호소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한편 國際적으로 先進國間에 이미 다음과 같은 樣相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프랑스가 EC共同換率制를 이탈하여 通貨의 實質的切下를 실시하였다.

EC共同換率制는 방대한 유로, 달러를 갖는 유럽主要國를 특히 EC諸國들이 그들 相互間的 換投機造成을 억제하기 위하여 域內에서는 固定換率을 유지하면서 域外에 대해서만 流動換率을 택한 것이다. 이로서 通貨의 地域的 不安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인데 프랑스가 이를 이탈하였음은 프랑스는 域內에서도 流動

換率을 실시하고 輸出과 國際收支의 伸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다른 EC國家도 이와같이 한다면 EC內에서도 通貨不安은 再燃될 것이다.

둘째로 英, 仏, 日本이 성행하고 있는 中東諸國과의 바터貿易을 들수 있다. 이에 대해서 비중은 적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 石油와의 바터貿易을 실시하면 外貨支出의 必要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傾向이 極端化되면 世界經濟가 불럭經濟化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또한 石油輸入으로 赤字를 면치 못하는 나라들이 부득이 國際收支의 均衡을 위하여 輸入制限과 輸出攻勢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면 貿易戰爭의 격화를 초래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다음 項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이미 資源내셔널리즘 外換 및 國際通貨의 不安과 함께 保護貿易의 강력한 대두가 世界經濟에 不安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의 사건은 미국의 對外投融資規制의 철폐를 들수 있다. 이로서 미국은 投資市場을 정비하고 오일, 달러의 流入을 企圖하여 美國의 國際收支에 有利하게 하여 또한 石油輸入負擔으로 고생하는 유럽과 日本에의 投資를 促進하는 兩面的인 効果를 노린 것이다. 어쨌던 石油波動이후 미국은 오히려 달러貨의 強貨를 초래하며 世界經濟에 있어서의 位置를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74년초 예일大學의 구과教授는 『世界의 資源波動은 다른 工業

國의 貿易條件을 惡化시켰으나 美國은 이점에 있어 損害를 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달러市勢는 이미 약간 上昇되고 있으며 他國通貨와의 交換性을 계속 갖일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물론 이것이 金이나 SDR에 對應하여 중전의 國際決濟手段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런던 스쿨의 존슨 教授는 미국의 貿易収支가 尙해지고 달러價值가 다소 높아질지는 모르나 달러의 多樣性이 回復될 可能性도 國際通貨改革의 展望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에서 고찰한 몇가지 동향은 石油波動의 미국, 유럽 및 日本등 先進國들의 立場이었다. 각국의 立場과 동향이 어떻든 막대한 油價, 달러를 축적한 産油國의 國際貨秩序에 대한 態度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IMF나 先進國의 通貨當局은 國際金融市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油價, 달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부심하고 있다. 예를들면 石油消費國은 달러 대신 에너지·유니트(單位)를 支給하고 그 유니트는 풀로 管理하면서 産油國은 自由로 引出할 수 있으나 나머지 殘高는 에너지 基金으로 돌려 新에너지源의 開發融資에 쓰도록 하고 21세기 이후 石油가 고갈되면 産油國에 新에너지供給을 보장한다는 案이 고려될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햇빛을 보지 못했다.

지난 1월 中間 로마에서 열렸던 20個 國財相會議에서도 油價, 달러의 還流問題가 中心議題의 하나이었고 2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石油消費國會議에서도 油價, 달러문제가 議題로 등장했다.

로마會議에서는 IMF專務理事 윌드웨인의 案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오일. 달러는 IMF를 통해 흡수하여 石油代錢 때문에 國際收支가 어려워진 消費國 특히 開發途上國에 貸出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特別融資制度」인 것이다. 이 제안은 20個國 財藏會議에서 IMF의 緊急研究課題로 되었다. 그러나 이 案에는 技術上의 問題가 있다.

무엇보다도 産油國이 오일. 달러의 運用에 他國의 干涉을 받겠느냐하는 것과 또한 이것으로도 世界經濟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지나치게 引上된 石油價格에 世界經濟 특히 石油消費國을 이 適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西獨은 위의 案을 환영하던서도 보다 근본적인것은 石油價格의 引下가 先決問題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마會議의 決議에 署名한 사우디.아랍의 石油相自身이 이 提案을 거부함으로써 이는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되고만 것이다.

또한, 世界銀行이 特殊債券을 發行하여 過剩된 오일. 달러를 吸收하고 非産油 開發途上國에 融資하는 提案도 있으나, 설사 이것이 햇빛을 본다해도 스스로의 限界가 있다.

아랍産油國은 石油本位라는 國際通貨改革을 提案할만큼 威勢가 당당해지고 보면 産油國의 오일. 달러를 消費國에 過流시키기 위한 協調를 얻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것 같다.

라. 新保護貿易主義와 貿易共同體

自由貿易의 理想과 保護貿易의 現實은 몇차례 엇갈리면서 많은 試行錯誤와 戰爭과 試練을 거치면서 世界貿易史를 點綴해온 것은 다 아는 일이다. 2次의 世界大戰을 거친 先進國들은 더 이상 保護貿易과 貿易戰爭을 원치 않았으므로 戰後의 世界經濟秩序를 유지하기 위해 IMF, IBRD와 함께 GATT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IMF, GATT體制下的 自由貿易主義는 戰後 4半世紀에 걸쳐 世界貿易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격심한 國際通貨波動과 함께 IMF體制가 흔들리고 GATT의 自由貿易主義도 新保護主義의 抬頭로 그 權產를 상실해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종래 自由貿易의 擴大發展을 위한 國際協力에 있어 主導的役割을 담당해온 미국이 貿易收支의 持續的인 惡化와 國內物価 및 貨金上昇을 계기로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弱화를 메꾸기 위한 保護主義에의 後退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특히 1971년 8월 15일 닉슨美國大統領의 緊急措置는 世界貿易과 經濟秩序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0%의 輸入附加稅는 公公然하게 保護貿易主義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데서 주목되었다. 이는 얼마전 自由貿易의 절정이었던 케네디大統領의 케네디·라운드의 제안과는 너무도 極端的인 對照를 이룬다. 미국은 그후 同年 10月 韓國, 日本, 台灣, 홍콩 등 東南亞 4個國과 纖維類輸出自律規制協定을 체결하고 1972년 5월과 6월에는 日本의 電子製品과 韓國의 신발類등에 대해 相對關稅措置를 취하였고 또한 極端的인 保護貿易主義의 성격

을 떠운 볼케 . 하트케 (Burke-Hartke) 法案을 議會에 제출했으며 同年 12月 再덤핑法을 개정하고 政府通商法案에 세이프 . 가드 (safeguard) 條項을 挿入하는등 保護貿易政策이 계속 진행되었다.

다음에 世界貿易에 있어 保護主義를 대두시킨 또하나의 요인은 開發途上國會議이다 . 1964年 第1次UNCTAD總會를 계기로 南北問題와 保護貿易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開發途上國들은 先進國中心으로 營爲되어온 國際通貨 및 貿易의 매카니즘에 대해 途上國의 利益을 보다 강력히 反映시킬 必要가 있음을 통감하고 있는것은 명백하다 . 더우기 南北間의 貿易隔差는 그 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 와서는 더욱더 擴大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 뿐만 아니라 1968 ~ 70년의 好況期에 비교적 높은 成長을 기록했던 開發途上國들이 71 ~ 72년에는 先進國經濟의 停滯의 영향을 받아 그 成長이 크게 鈍化되었다 . 開發途上國들은 이때문에 開發先行에 不安을 느끼고 72年 UNCTAD 第3回 總會에서는 保護貿易主義의 강력한 요구를 하였던 것이다 .

특히 開發途上國의 貿易은 1960 ~ 70년에 있어 輸出이 年平均 6.5% , 輸入은 5.7%의 低調한 伸張에 그쳤고 같은 기간의 先進國들이 輸出 8.4% , 輸入 8.3%의 伸張率을 보인것 보다 크게 下廻하고 있다 .

世界貿易에 있어 이러한 南北間貿易隔差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UNCTAD에서 설정한 一般特惠關稅制度를 들수 있다 . 이것

은 이미 1968년에 열렸던 第2回 UNCTAD 總會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으로 「開發途上國에 利益이 될 非互惠的이며 無無差別的인 一般特惠關稅制度」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에 高潮되던 先進國들이 自由貿易主義에 대한 例外的措置로서의 保護貿易主義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물론 UNCTAD는 지금까지 3次의 總會를 통하여 同一한 問題를 수 없이 論議만 거듭하였을뿐 斷期的인 進展을 찾아볼수 없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UNCTAD의 決議가 拘束力이 없는데도 기인되지만 現實的으로 先進國들의 協助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南北問題의 意識을 고취시키고 保護貿易主義의 한 要因이 되었음은 否認할 수 없다.

戰後 世界貿易에 있어서 看過할 수 없는 사항은 유럽의 貿易共同體이다. 戰後유럽은 미·소兩勢力의 強化에 대처하여 惡化된 그들의 地位를 再建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經濟共同體의 움직임이 싹트게 된 것이다. 1951년 파리에서 유럽石炭鉍鎳共同體(EGSC)를 결성한데 이어 1955년에는 이를 가맹국 6개국이 유럽經濟共同體(EEC)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EEC가맹에 실패한 英國을 비롯한 7개국은 유럽自由貿易聯合(EFTA)을 구성하였고 1970년에는 9개국으로 늘었다.

EEC와 EFTA는 유럽통합의 추진과정에서 서로 獨自的인 政策을 유지하면서 서로 對内外條件의 變動에 대처하여 서로 協力 또는

融合을 도모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특히 1972년 1월 부러셀에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노웨이 등 4개국이 18개월의 協商 끝에 EC加入에 조인함으로써 유럽共同体는 外延的擴大에 성공하였다.

뿐만아니라 1972년 7월에는 EC加盟國 9個國과 EFTA加盟國 9個國이 EC-EFTA間의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유럽의 單一通商圈이 형성된 것이다.

이와같이 EC-EFTA의 自由貿易協定에 의하여 하나의 通商圈으로 형성된 西유럽은 東歐圈을 제외한 강력한 單一通商블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단일 通商圈形成에 따른 EC-EFTA의 貿易規模는 全世界交易額의 約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經濟規模에 있어서도 GNP는 7,204億달러로 美國의 9,741億 달러에는 미달하고 있으나 日本·소련등 다른 先進國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유럽의 단일통상권은 域內交易增進과 經濟成長을 促進하는 한편 世界經濟에 있어서의 유럽의 比重을 높이고 특히 美國經濟와 對抗할 수 있는 強力한 經濟勢力圈을 구축하여 相對的으로 美國의 位置를 低下시킴으로서 世界貿易構造의 改編을 촉진시킨 것이다.

EC-EFTA의 經濟規模 (1971年)

(表 2)

	인 구 (백만명)	GNP (1億달러)	輸出 (FOB) (百万달러)	構 成 比	輸 入 (CIF) (百万달러)	構 成 比
EC-EFTA	293	7,204	150,909	48.3%	157,789	48.0%
擴大 EC	253	6,261	128,434	41.1	130,434	39.6
殘留 EFTA	40	943	22,475	7.2	27,355	8.4
美國	207	9,741	44,137	14.1	48,520	14.7
日本	104	1,978	24,040	7.7	19,727	6.0
東歐圈	345	5,820	-	-	-	-
全世界	3,652		912,600	100.0	923,000	100.0

자료 :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1972. IPS.

마. 東西經濟交流

1960年代 前半期까지는 東西貿易은 東歐와 西歐間에 原料와 製品의 補完的의 交易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集脚後 소련을 비롯한 東歐 共產國들은 그들의 封鎖的인 社会主義統制 經濟의 非能率性을 극복하기 위하여 리베르만의 利潤原理와 比較生 産費의 原則에 따라 점차 西分世界와의 交易과 開放에 신경을 쓰 기 시작했다.

1964년에는 COMECON 諸國들은 COMECON銀行을 創設하여 域 內交易增大와 社会主義諸國間의 多角的決濟諸度를 確立함으로써

1960~70年間 年平均 8.4%의 域內貿易의 增加率을 기록케 하였다. 그러나 이보다도 주목할만한것은 Comecon 의 西歐諸國과의 交易인데 같은 기간에 輸出은 年平均 11%, 輸入은 12%나 增加되어 域內貿易增加率보다도 높아졌고 共產諸國의 西方側과의 貿易構成이 1955년에는 26.5%이던것이 1970년에는 38.2%로 增加하게 되었다.

東西貿易의 年度別現況

<表 3>

(單位: 億달러)

	1950	1955	1960	1965	1969	1970
共產國貿易總額	107	192	338	485	655	717
COMECON 域內貿易	82	155	266	399	544	612
對自由圈貿易	40	51	99	139	240	270
同構成比 (%)	37.4	28.5	29.2	28.7	36.6	38.2

자료: 소련, 東歐經濟通報, 1971.

한편 中 소 理念紛爭의 격화와 유럽에 있어서의 EC의抬頭, 極東에서의 日本의 經濟力擴大등에 자극받은 소련은 1969년 1월 COMECON 創設 20年行事에서 COMECON의 經濟統合論을 제창하게 되었고 域內的 分業體制確立과 共同事業에 대한 長期借款供與를 위해 國際投資銀行을 설립하고 소련 領導下의 共產國의 團結을 強化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들면서 東西의 解氷무드의 형성과 世界의

領導에 있어서의 多極化現象이 빚어지면서 東歐國들은 西方側에 대한 門互를 한층 개방하고 資本導入의 길까지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本研究에서는 東西貿易의 擴大에 대한 檢討는 이미 기정적인 사실이므로 이보다도 東西資本協力에 관하여 보다 세밀하게 檢討하겠다.

특히 東歐企業들은 그들 나름대로 資本主義機構를 利用하면서 市場開拓를 企圖하여 積極적으로 西方側에 進出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工業化를 한층 深化하여 西方側에의 輸出增大를 圖謀하기 위하여 合作投資事業의 關係法規를 정비하면서 外國資本의 國內導入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미·소의 經濟關係가 긴밀하게 되고 全유럽安保會議開催에 의한 長期的인 東西歐의 經濟協力体制의 確立이 예상됨으로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東歐國中에서 自由化에 가장 앞서있는 유고는 이에 67년7월부터 合作投資關係法規를 정비하여 社會主義國으로서는 年度로 外資導入의 門戶를 개방하였다. 최초의 外資導入은 68년4월 이탈리아 피아트社와의 自動車生産에 관한 合作投資契約을 들수 있으며 그후 73년3월까지 체결된 계약은 79件에 이르고 있다.

이밖의 東歐國에서는 70년에 헝가리가 法令第19號로 外國人合作投資를 허용했고, 71년에 루마니아와 新外國貿易法을 제정하여 外國資本과의 合作企業設立에 法的根拠를 마련하였다.

東歐國의 一部國家가 이와같이 國內合作投資를 허용만것은, 정치적으로는 東西解氷에 따른 것이지만 經濟적으로는 重化學工業化를 促

進하기 위하여 技術적으로 優位에 있는 西方側工業國의 機械·設備 및 技術導入이 不可避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工業技術水準에 있어 後進되고 輸出指向的 天然資源이 不足한 東歐諸國은 西方側工業國과의 貿易에 있어 入超를 면할수 없게 되자 이른바 産業協力(industrial Co-operation)이라는 名目으로 借款導入을 허용하게 된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協力方式은 ① 西方側에서 東歐에 대해 借款을 供與하여 機械·設備·特許·技術등을 제공하고 東歐는 그 代價로 現金外에 新工場의 生産物 또는 開發된 原料등을 제공하는 것과 ② 東西企業의 共同生産(共同販賣를 包含하는 것도 있다) ③ 部品生産을 東西企業이 專門化系列化하여 서로 交換하여 組立하는 것 ④ 第3國에의 共同進出 등 여러가지 形態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던 이 産業協力の 特徵은 東側의 輸出不振·外貨不足을 극복하고 東西經濟協力の 進展을 追求하는데 있다. 東西間의 産業協力は 73년 5월말 현재 유고가 375, 헝가리가 250, 폴랜드가 200, 루마니아가 160, 불가리아가 50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西方側에서는 西獨, 이달리아를 비롯하여 유럽이 圧倒的地位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東歐側도 西方에 販賣拠点을 만들기 위한 것등 合作事業을 設立하고 있는데 西方에 進出한 東歐系企業은 유고가 380,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각각 30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밖에 불가리아, 헝가리 鐵코등도 活潑한 進出을 펴하고 있다.

물론 社會主義下의 合作投資事業은 資本主義와 달라서 그 所有權

이 ① 社会的 所有와 ② 労働者評議會에 귀속되고 있다. 그러나 共産國側의 所有者야 누구이든 西方側의 所有는 民間企業人이므로 결국 兩者間에 合同委員會가 설치되고 이 委員會가 企業을 運營하게 된다.

以上은 東歐國의 경우이고 최근까지의 관심사는 과연 소련이 合作投資를 허용할 것인가에 두어지고 있다. 대체로 소련이 憲法을 改正하여 合作投資의 設立을 企圖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否定的見解가 크다.

그러나 소련 自身도 封鎖的經濟體質이 技術革新에 있어 非能率的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不振된 經濟進歩를 打開하기 위하여 東西經濟交流에 拍車를 加하게 될것임은 틀림없다. 이렇게되면 소련도 보다 폭넓은 産業協力の 方向을 外面하지 않으리라는 期待를 갖게 한다.

현재까지 소련이 취하고 있는 産業協力は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政府間經濟. 科學. 技術. 協力協定에 의한것, ② 소련側과 西方側大企業의 協力協定(주로 미국) ③ 特許協定과 設備輸入 ④ 借款베이스의 工場을 建設한후 同工場의 生産物로 償還에 充當(工場의 所有權이나 管理權은 제외) ⑤ 시베리아 및 極東의 資源開發등이다. 西方側은 所有權이나 經營權에의 參與를 희망하고 있으나 소련은 이에 대해 승인할 기색이 전혀 없다. 더러면서도 소련은 開發途上國에 合作企業을 設立할것을 西方側에 提案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中南美에의 進出을 목표로 美國企業과의 共同投資를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展望

가. 資源經濟의 新戰略

世界的으로 資源難時代에 접어들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두세 가지로 집약될 수 밖에 없다. 첫째는 資源 開發에 보다 힘을 기울여 資源을 조금이라도 더 供給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둘째는 代替資源을 研究開發하여 根本적으로 資源의 制約에서 脫皮하는 것과 셋째는 資源을 되도록 効率的으로 使用하여 浪費가 없이 節約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資源 開發에 對한 全世界的인 努力도 한편으로 資源내 서 날리 증化되는 가운데서도 資源 開發에 關하여는 技術協力 또는 經濟協力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부터 歷史的關係에 있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다시 말하면 과거에 植民地를 많이 가졌고 대부분의 資源을 海外植民地에 依存하던 유럽各國은 이를 開發途上國과 技術協力 또는 經濟協력을 통하여 開發途上國의 繁榮에 공헌하고 그 結果 自國技術에 對한 信賴感을 獲得함으로써 資源 開發을 위한 民間企業進出의 背景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는 프랑通貨國內의 아프리카諸國을 중심으로 鎂業 開發을 위해 프랑스의 援助協力基金(FAC)로부터 BRGM에 補助金を 주고 專門家를 파견하여 採鎂, 開發을 遂行하는 동시에 FAC가 相對國에 資金을 供給하고 때로는 BRGM에 事業을 委託하기로 하는 것이다.

西獨은 地質調査國을 편성하여 開發途上國政府의 요청에 의해 이들을 파견하는데 1953년부터 68년까지 15年동안 이러한 技術援助가 61個國에 걸쳐 이루어졌다.

勿論 資源開發에 對한 經濟協力은 유럽뿐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言及한 바와같이 特別히 에너지資源의 開發을 위해서는 더욱 큰 관심을 갖게한다. 最近 우리나라의 大陸棚開發에 對한 各國과의 技術協力도 그 하나의 例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도 中東地域을 包含하여 先進工業國의 資本 및 技術과 開發途上國의 資源, 一般的으로 말해서 資源保有國과 資源消費國間에 어떻게든지 共同利益의 追求를 바탕으로 資源開發體制를 형성해 왔고 이에 의하여 資源의 開發, 生産, 販賣等 모든面에서 相互協調體制를 마련하려고 努力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資源問題를 둘러싸고 開發途上國의 내셔널리즘이 그 焦點을 貿易問題로부터 資源問題로 옮기게된 結果 世界資源事情에 어려운 狀況을 초래한 것이다.

에너지를 비롯하여 重要資源이 偏在되어 있어 그 需要國과 賦存國이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現實이 資源問題의 國際的解決을 要求하는 것이나, 이에도 스스로의 限界性이 있다. 國際的協力 또는 制度가 어떠한 措置를 취하던 그것이 各國의 主權에 對해 拘束力을 갖지 못하며 各國의 利害의 不一致때문에 自律的인 調整에도 限界가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先進工業國은 資源協力の 政策方向으로 세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開發途上國의 資源開發에 對한 援助, 둘째는 資源의 國際的生産體制와 流通機構의 合理化, 셋째는 資源의 新開發과 保全에 關한 技術的인 側面의 協力等이다. 위와같은 先進工業國의 資源開發協력이 과연 賦存開發途上國들에게 自律的인 資源協力を 할만큼 충분하다고 보기에 는 어렵다. 거기에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사이 에 資源開發利益의 分割에 있어서의 利害의 對立과 先進國의 내셔널리즘과 開發途上國의 내셔널리즘間에 依存과 抵抗相関과 緊張의 複合關係로 엮여지고 있는 모든 問題들이 介在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植民地型資源開發이 보여준 植民地企業資本에 의한 資源의 收奪과 流出의 歷史的殘影이 아직도 남아있는 가운데 現代의 國際企業도 國際的獨寡占 企業으로 날로 커가고 있어 그러한 警戒心을 버리지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의 聯邦去來委員會의 「石油産業에 關한 調查報告書」의 結論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石油企業은 상당한 市場支配力을 갖고 있으며 同業體間에 競爭보다도 協助關係에 있어 市場支配力을 더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國內市場에서도 石油企業들이 相互競爭보다 協助關係에 있다면 海外市場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번 石油波動以後 美國의 石油企業들은 美國市場內에서는 利潤幅을 크게 減少시켰지만 海外市場에서는 오히려 利潤幅을 크게 擴大시켰음이 報道되었었다.

이와같이 石油工業은 同業者間에 競争關係를 止揚함으로써 石油消費市場에 있어 独占的支配力을 행사할 수 있을뿐 아니라 海外市場과 國內市場과의 差別利潤을 獲得함으로써 한층더 높은 独占力을 發揮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產油國의 資源내셔널리즘에 못지않게 重要한 問題는 石油企業의 消費者 또는 海外消費國에 對한 協力的 態度인 것이다. 앞서 美國의 調査報告書의 結論部分에 現在의 石油不足을 초래케한 6個의 原因中에서 「大規模石油企業의 相互依存的 및 協力的行動」 「獨立系精製業者에 對해 國產原油의 供給이 充分히 行해지지 않은 點」等 두가지는 전적으로 石油企業의 行動에 基因됨을 지적하는 것이다. 勿論 위의 要因은 美國內의 要因이지만 海外消費國에 對해서는 더 한층 相互依存的인 協力行爲를 통해 独占力을 行使하며 獨立系精製業者以上으로 他供給者에게 供給을 行하지 않았을것임은 明白한 것이다.

그러므로 資源내셔널리즘에 대치하여 資源協力を 조금이라도 더 円滑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先進國들이 내셔널리즘을 인터·내셔널리즘으로 轉向하는 아량을 베풀어야 할 것이며, 한편 石油企業體들의 独占的支配와 市場差別化를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資源協력에 있어 무엇보다 重要한것은 資源問題가 단순한 經濟的問題가 아니라 政治的, 軍事的問題까지 얽혀있다는 點이다.

即 資源問題는 첫째로 物理的埋藏量을 지적할 수 있으나 둘째로는 단순한 經濟問題에 그치지 않고 그 分配를 둘러싼 政治的,

軍事的問題에 直結된다는 點이 重要하다.

經濟的埋藏量이라 함은 石油波動後 中東石油價格의 引上으로 美國의 에너지 資源開發이 促進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充分히 理解할 수 있다. 과거에 美國은 에너지資源을 物量的으로 保有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中東石油價格이 低廉하기 때문에 이를 開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重要한 것은 資源의 埋藏量과 消費構造가 世界的으로 偏在되어 있기 때문에 保有國과 消費國間의 罅을 어떻게 調整하느냐에 對한 政治的問題가 重要한 것이다. 더욱기 資源市場의 特質普通市場의 機能과 달리 保有國, 消費國,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巨大한 國際資本의 三層構造로 構成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三層構造위에 소련, 中共등의 共產國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와같은 多角的인 要因들이 보이지않게 얽혀있는 高度의 國際政治的 問題인 것이다.

셋째로 資源問題는 南北問題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70年代의 資源問題의 특징과 問題點은 그것이 物理的 經濟的危機보다도 政治的 問題인 것이며, 특히 南北問題는 間接的으로 社會主義化의 問題와도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資源問題는 客觀的인 理由도 充分히 있다. 예를들면 OPEC諸國은 世界石油輸出의 85%, 生産의 80%, 埋藏量의 70%를 차지하면서 消費는 14%밖에 하지않으나 美國은 6%의 人口로 에너지消費는 世界의 3분의 1을 行하고 있으며, 日本은 石油 한

방을나지 않으면서 人口 3%가 에너지는 10%를 消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資源의 生産과 分配가 根本적으로 不均衡임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한편 다른 統計를 例示하면 1970年의 1人당 에너지消費량은 石炭換算으로 工業國은 6,032 kg, 開發途上國은 337 kg로서 무려 18對1의 不均衡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不均衡을 是正하고 싶다는것이 南側의 要求인 것이다. 이러한 要求에 부응하여 開發途上國의 資源내셔널리즘을 合理化시키고 南北問題를 思想的으로 社會主義國家에 有利한 方向으로 유도하려는 政治的意圖가 介在된 것이 지난번 유엔資源總會에서 露出되었던 것이다. 事實上 開發途上國들이 資源의 生産과 販賣를 自主적으로 決定하겠다는 欲望은 充分히 客觀적으로 理由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있는 南側의 要求가 받드시 社會主義的 立場에서 妥當하며 資本主義的 立場에서 不當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의 立場에서 問題되기보다는 國際政治的 側面과 國民經濟의 隔差로 인한 어쩔수 없었던 經濟的側面에 관련되고 있을 것이다.

네째로 資源經濟協力の 애로는 政府와 民間의 교착狀態의 問題이다. 이것은 政府와 政府間의 見解의 差에 기인되는 경우도 많아 精確하게 結論짓기 어려운 問題이다. 대체적으로 先進國들이 開發途上國의 政府의 立場을 充分히 理解하지 못하고 때로는 開發途上國에 있어 政府와 民間사이에 교착狀態에 빠진것으로 판단함으로써 正常的인 經濟協力を 기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기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특히 資源經濟協力は 經濟的側面보다도 政治的側面이 더욱 크게 作用하기 때문에 一般經濟協力보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問題이다.

資源은 보통 商品과 달라서 항상 經濟體制와 政治體制가 一体가 되어 進行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본래 資源問題는 政治的問題라고 말할 수 있으며 協力を 交渉하는 主体로 相對方도 모두 政府인 것이다. 따라서 政府와 民間企業이 교착되거나 흔히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政權과 國民이 二重構造를 형성하고 있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으로서 政府間交渉에 있어 不必要한 마찰을 일으키게 하기 쉬운 것이다.

資源消費國이면서 開發途上國인 우리나라는 위와같이 복잡한 資源經濟構造에 어떻게 對処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重要하다. 資源消費國에 있어서도 先進工業國은 國際資本을 保有하고 있어 적어도 資源産業體 또는 資源企業은 갖고 있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인 우리나라는 國際資本에 있어서도 借入國이지 投資國이 되지못하며 따라서 海外資源에 投資한 資源企業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러한 點에서 같은 資源消費國이라도 EC國家와 다르다. 美國은 資源保有國인 동시에 資源企業保有國이며 EC는 資源消費國이지만 資源企業保有國이며 中東은 資源企業은 없어도 資源保有國이지만 우리나라는 資源도 없고 資源企業도 없다.

이러한 立場에서 經濟開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두가지 側面에서 資源協力を 추구해야 한다.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와의

經濟協力에 있어 資本提供國家들이 資源企業保有國인 경우 이들을 통하여 資源協력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資本協력을 통한 資源協力 또는 資本協력과 資源協력이 同時에 追求될 수 있다는 有益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勿論 여기에는 共產主義國家들이 말하는 이른바 植民主義的 犧牲이 따른다는 問題가 제기될 수 있으나 그러한 政治的인 問題는 民主的으로 解決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금까지 우리와의 經濟協력이 크지 않던 資源保有國과의 資源協力 및 經濟協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資本提供國家들과의 經濟協력과 다른 입장에 있다. 앞의 경우는 우리가 資本과 技術을 提供받는 入場에서의 經濟協력이지만 資源保有國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資本이나 技術을 提供할 수도 있는 入場이지만 최근에는 產油國들의 막대한 油일·달러의 축적에 기인되어 우리가 그들로부터 資本協力도 제공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問題는 두가지로 집약할 수 밖에 없다. 資本協력에 있어서도 조만간 우리가 協력을 받아야 할 입장이므로 적어도 資本協력을 우리가 資源保有國에게 제공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商品交易의 擴大, 특히 交易條件에 있어 다소 不利하다라도 이를 감수하고 바타貿易을 促進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에는 技術協력에 있어 우리가 제공하는 面に 設수 있을 것이다.

세째는 단순히 開發途上國이라는 理由에서 資源消費國의 立場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資源내셔널리즘에 同調해야 하는가의 問題이다.

우리는 資源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同調도 批判도 할수없는 中立 國制度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資源내셔널리즘에의 同調는 資源保有國이 할 일이며 그 批判은 先進工業國인 資源消費國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EC와 같은 資源消費國도 保有國의 눈치를 살피는 入場인데 우리가 이에 앞장설 必要는 없을 것이다.

나. 國際通貨 改革의 方向

1972年 第27次 IMF總會以後 國際通貨制度에 對한 改革論議가 本格化되고 있다. 同年次總會에서는 國際通貨改革問題를 전달하는 「20個國委員會」를 두었으며 과거에는 通貨問題가 先進國만으로 構成된 「구름 10」을 중심으로 論議했던 것과는 달리 開發途上國에서도 절반가까이 參席하고 있다. 同委員會는 國際收支調整과 換率메카니즘에 關한 問題, 諸準備資産의 役割, 外國이 保有하는 過剩달러殘額의 處理, 國際收支差額의 決濟, SDR의 創出 및 開發金融과의 링크에 關한 問題등을 중심으로 論議해 왔다.

첫째로 國際收支調整에 關한 問題에 對해서는 赤字國과 黑字國間의 調整義務分担, 調整의 必要性 또는 不均衡狀態의 判斷基準, 調整을 위한 政策手段의 選定, 換率메카니즘, 調整措置를 취하지 않는 國家에 對한 制裁의 如否등의 問題를 다루게 된다.

現在의 制度에서는 國際收支赤字國은 平價切下措置를 취하지 않고 平價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對外準備資産의 可用性(Availability of External Reserves), 即 保有準備資産(金 및 外換)

과 對外借入能力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러나 國際收支黑字國이 平
價切下措置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런 制限이
없으므로 自由이다. 따라서 各國은 黑字時에는 平價調整을 기피하
고 反對로 赤字時에는 平價調整을 實施하는 영향이 컸다. 이와같
은 平價調整의 非對稱性을 是正하기 위하여 赤字國과 黑字國의 雙
方에 對하여 多같이 調整義務를 分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美國에
의해 제안되었고 다른 나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具體的인 方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平價調整이 과연 얼마나 國際收支가 不均衡狀態에 이를
때에 취해야 하는가를 매우 專門的인 것이다. 이에 對해서는 國
際的協議 또는 監視制度를 設置하자는 案과 客觀的인 指標를 설정
하자는 두가지의 案이 제시되어 論議되고 있다. 이와같은 두가지
案은 다시論議끝에 單一案으로 統合되는 方向으로 意見이 接近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또한 指標에 對해서는 美國은 準備資産趨移를 主指標로
使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태리는 循環的 景氣變動 要素를 조정
한 基礎數值(Cyclically Adjusted Basic Balance)의 趨移를
부라질은 費用 價格差異(Cost-price Differentials)를 내세우
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單一指標보다도 몇개의 條例指標 또는
複合指標를 使用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論議가 있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國際收支의 調整政策을 위하여는 對內政策과 換率 및 貿易規制등

對外政策으로 区分되어 論議되고 있다. 各國이 國際收支調整을 위하여 취하는 對內政策들도 결국은 對外的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各國에 一任하는 것은 混亂을 초래하므로 곤란하다는 견지에서 各國의 對內政策에 대해서도 어떤 行動指針을 마련하자는 意見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상 最近에 各國이 總需要抑制策을 취하는 것은 物價의 安定을 위한 對內政策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것이 結果的으로는 相對國의 輸出需要를 감퇴시키는 對外的效果를 나타내게 되며 世界的 不況의 한 要因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할 때에 IMF는 國際收支의 조정을 위하여는 對內政策까지도 어떤 準則을 마련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各國의 意見은 對外政策만 적절히 조정하면 될 일이지 各國의 主權에 속하는 對內政策까지 간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여 反對意見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對外政策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效果的인 對內政策이 重要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慣習과 經濟構造가 다른 모든 加盟國들에게 적용될 統一된 對內政策指針이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다.

勿論 美國이나 네델란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바람직한 것은 換率이나 貿易統制와 같은 對外政策의 變動이 나타나지 않고도 對內政策에 의하여 모든 對內目標의 달성과 함께 國際收支의 조정도 달성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各國의 主權과 慣習이 다르고 經濟構造도 다른 各國의 對內政策에 대해 國際機構

가 간섭할 수 있으며 統一된 行動指針을 마련할 수 있을 可能性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國際收支의 조정을 위하여는 換率조정과 對外去來에 對한 規制등 對外政策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換率調整은 가장 強力한 國際收支 調整手段이며, 따라서 이번 改革論議에서도 가장 中心的인 論題가 되었다.

換率政策과 관련된 主要論議의 對象은 換率政策의 役割, 새로운 換率制度의 基本性格, 變動換率制度의 許容問題등 이었다.

첫째 換率政策의 役割에 대해서는 그것이 不均衡을 是正하는 가장 強力한 手段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한편으로 이에 對內政策의 重要性이 強調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甚覺한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되도록 評價變動에 依存하지 않도록 하는 方向으로 意見이 接近되고 있다.

둘째는 換率制度의 基本性格을 變動할 것이냐의 如否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調整이 可能한 固定評價制 (Adjustable Peg System)에 基礎를 두어 換率의 安定을 維持하되 한편으로 變動換率制의 要素를 상당히 加味하여 評價變動에 伸張性을 크게 增大시키도록 해야한다는 데에 거의 一致된 見解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安定的이지만 調整可能한 評價制度 (Stable but Adjustable Parity System)라는 표현으로 불려워지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方案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데 하나는 現在보다 小幅의이면서 迅速한 評價變更을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現物換率 (Spot Exc-

change Rate)의 變動幅을 擴大하는 와이드·마진(Wider Margin)인 것이며 위의 두개의 案에 對한 論議를 하고 있다. 本研究는 이러한 具體的인 問題를 더 說明할 必要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와이드·마진(Wider Margin)制는 換率의 伸縮性 增大를 위해 特別히 美國이 주장하고 있다.

와이드·마진을 주장하는 根拠로는 換率의 變動幅이 크면 均衡的인 短期資本移動을 促進하는 同時에 擾亂的인 短期資本 移動을 抑制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前章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現代에 있어 國際通貨의 不安定은 유로·달러와 오일·달러등의 過剩된 달러가 換投機에 加세하고 있기때문이다. 와이드·마진은 이러한 換投機를 抑制하고 不均衡을 是正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와이드·마진制를 採択하면 獨立的인 國內金融政策의 遂行이 可能해지고, 또한 變動幅이 커지면 評價變更을 豫想한 換投機도 抑制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換率의 變動幅이 크면 換率 그 자체가 不安定해질 뿐만 아니라 貿易의 順調로운 擴大를 阻害하게 되며, 投機的인 短期資本 移動을 抑制하는 利點은 있으나 資本移動을 硬直化시키고 심지어는 流出되었던 短期資本의 還流까지도 阻害하는 短點도 있기때문에 EC諸國과 日本에서도 反對하고 있다. 한편 換率의 不安定은 開發途上國에 對해서도 不利한 影響을 미칠 可能性이 있기때문에 大部分의 開發途上國도 이에 反對하고 있다.

따라서 換率의 變動幅은 現在 스미소니언協定에 의해 許容되고

있는 대로 評價의 上下 $2\frac{1}{4}\%$ 以上 크게 擴大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계는 一時的變動換率制의 必要性을 인정하고 있으며 外換市場에 의 介入에 對해서는 多數國의 通貨를 介入通貨도 使用하는 複數通貨介入案과 SDR에 SDR介入案이 제시되고 있다. 複數通貨介入案에 對해서는 많은 國家들이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技術的으로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檢討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SDR介入案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時期尙早라는 意見이 支配的이다.

지금까지의 意見을 다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際收支의 調整政策이 國際通貨制度에 있어 가장 重要한 것인바 이러한 政策을 취함에 있어서는 ① 對內政策의 重要性이 인정되어야 하며 ② 換率政策에 對한 IMF의 감시技能을 강화하고 ③ 國際收支上의 理由로 因한 貿易規制의 實施을 抑制하되 開發途上國에 對해서만 特別히 배려하며 ④ 攪亂的인 短期資本移動을 規制한다는 原則이 合意되었다.

둘째로 國際收支의 不均衡國의 식별을 위하여는 ① 客權的 指標에 의해 不均衡如否를 判斷하도록 하여야 하며 ② 不均衡國에 對하여는 赤字國과 黒字國의 雙方에 調整義務를 부여하고 協議에 의해 調整措置를 促求하도록 한다.

세계 換率制度에 있어서는 ①安定的이면서 調整可能한 評價制度를 根幹으로 하되 現在보다는 多少 伸縮性을 增大시키고 ② 一時的變

動換率制의 必要性은 인정한다.

以上の 外에 내재로 準備資産에 있어서는 ① SDR의 役割을 增大시켜 이것이 앞으로의 主要準備資産으로 役割되도록 하고 ② 순과 리저브通貨는 過渡期間中에 準備資産으로 계속 使用하되 점차 그 役割은 縮少시키며 ③ 效果的流動性 調節을 위하여 準備資産 出에 對한 國際的調整을 強化한다는 것 등이다.

위와같은 方向에서 改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方案이 앞으로도 계속 論議될 것이며 아울러 外國保有過剩달러의 請算과 決論制度 그리고 SDR과 開發金融의 링크등 보다 현실적인 問題들이 앞으로 解決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시급한 解決을 要求하는 換率메카니즘에 對하여는 74年 9月の IMF年次總會에는 單一案을 提出하게 될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상당히 具體的인 案이 마련될 것이다.

다. 保護主義 및 地域主義의 傾向과 GATT体制의 進路

이미 前章에서 說明한 바와같이 自由, 無差別, 多角貿易原則을 基本으로 하던 GATT体制는 1970年에 들어와 美國, EC, 日本등 主要 先進國들애게서 새로이 대두하기 시작한 保護貿易主義의 傾向에 의하면 크게 危險을 받게 되었다. 한편 EC擴大의 實現, EC, EFTA間의 單一通商圈의 形成등 地域主義 傾向이 強化됨으로써 GATT는 더욱 큰 시련을 겪게되었다. 이에 對해서는 前章에서 다루었으므로 最近의 동향에 對해서만 再論하겠다.

美國은 1971年 8月 15日 緊急經濟措置의 一環으로 10% 輸入

課稅를 적용하였던 것은 이미 言及한 것이나, 同年 9月에는 버코·하트케法案이 提出되었다. 下院歳入委員會의 버크(J.A.Burke) 議員과 上院財政委員會의 하트케(V.Hartke) 議員이 提出한 이 法案은 ① 美國企業의 海外投資 및 海外進出을 抑制하기 위한 稅制의 改革 ② 모든 輸入品에 對한 數量規制 ③ 反덤핑法 및 相殺關稅法의 改正強化 ④ 에스케이프·폴로즈의 適用強化 ⑤ 對外投資 및 技術輸出에 關한 直接規制등 모두가 保護貿易主義의 性格을 強하게 하는 法案이다.

72年 3月에는 美國務省에서도 反덤핑法의 運用方針을 強化하고 이어 4月18日에는 同法의 보다 嚴格한 運用을 위한 施行規則의 改正案을 發表했다. 이 以上더 豫示할 것 없이 最近 美國의 保護主義的 傾向은 明白한 것이다.

한편 英國, 호주, 캐나다등의 先進國들과 EC諸國에서도 自國産業의 保護를 위하여 纖維類輸入 規制措置를 취하였거나 또는 취하려하고 있음이 明白하다. 各國政府는 貿易上의 어떤 問題가 生길때마다 「國內産業의 保護」라는 이름으로 保護主義가 強하게 作用되고 自由貿易主義는 후퇴되었다. 이와같은 傾向은 連鎖적인 反作用을 일으켜 報復의 악순환과 貿易戰爭의 유발을 초래할 可能性마저 생기게 되었다.

이와같은 保護主義의 強化와 함께 EC의 擴大와 EC 및 EFTA 間의 自由貿易協定 체결과 같은 地域主義의 強化는 世界貿易에 있어서의 無差別의 自由主義에 終止符를 찍는것 같은 인상을 준다.

GATT에있어서는 關稅의 一括引下 交渉이었던 케네디·라운드가 1972年 終了됨에 따라 이를 계승할 새로운 國際라운드의 타결이 요청되게 되며 이는 새로운 國際經濟的 環境의 造成에 따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이 必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國際通商面에서의 關稅引下에 따른 非關稅障壁의 強化, 先進諸國의 세이프가드(Safeguard)의 濫用, 反덤핑法 및 相殺關稅法의 適用強化등 前述한 바와같은 새로운 保護貿易主義의 대두에 따라 根本적으로 GATT체제의 有効性을 反省하게 되고 1970年부터는 主要 先進國을 中心으로 GATT체제에 새로운 活力素를 불어넣고 公正한 貿易秩序를 確立할 수 있는 對策을 마련하기에 腐心하기도 하였다. 이에 對한 論議가 새로운 國際라운드인 것이다.

新國際라운드에 對한 經緯를 소개하면 70年末 GATT事務局長과 日本, 캐나다, 호주등 自由貿易推進國이 中心이 되어 GATT체제의 問題點과 앞으로의 貿易協定 方式에 關한 論議를 行했으며 71年 4月 GATT의 非公式 全体會議에서도 케네디·라운드를 계승할 次期 貿易協商의 準備를 위한 作業方向등을 論議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71年 8月 美國의 緊急經濟措置가 發表되자 EC 및 日本은 이에 크게 反發하면서 同年11月 GATT總會에서 新國際라운드에 對한 積極的論議를 하게 되었고 특히 日本代表는 世界的인 保護貿易主義의 대두를 경고하면서 즉시로 多角的인 貿易協商을 始作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그러나 結論으로는 次期 GATT로 미루고 名分을 위한 消極的인 合意에 그치고 말았다.

72年 11月에 열린 GATT에서는 先進國相互間 그리고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의 利害關係가 날카롭게 對立되어 難航에 그치고 말았으나 新國際라운드의 必要性이 高潮되기는 하였다. 그리하여

① 73년에는 新國際라운드에 對한 交渉을 개시하고 75年末까지는 終了한다. ② 이를 위하여 貿易協商準備委員會 (Preparatory Committee for Trade Negotiation)를 設置하고 協商의 目標, 方法과 開發途上國 參加의 原則등을 檢討한다. ③ 73年 9月 閣僚級全體 會議을 열어 貿易協商委를 設置하고 交渉을 具體적으로 開始한다. ④ 新國際라운드에서는 工產品뿐 아니라 農產品도 對象으로 하며 關稅, 非關稅障壁, 세이프카드등에 對하여 綜合적으로 再檢討한다. ⑤ 開發途上國에 對하여는 特別한 配慮를 한다는것 등에 合意를 보았다. 결국 「翌年度에 開始」「檢討한다」「再檢討한다」「配慮를 한다」등 抽象的인 用語로 그쳤으나 新國際라운드에 對한 움직임은 73年에 東京에서 열린 GATT總會에서도 재확인되었으나 10月の 中東戰以後 資源내셔널리즘의 強化와 함께 그 實現이 遲延되고 있다.

3. 國際情勢의 변화가 南北韓經濟에 미칠 영향과 對策

가. 韓國經濟와 資源問題

資源問題는 韓國經濟에 있어 매우 심각하다. 이것은 北韓經濟에 比較할 바가 못될 것이다. 韓國經濟는 工業化와 特히 重化學工業의 開發로 資源需要가 계속 增大하고 있는 때에 國際資源供給의 애로시대에 직면한 것이다.

韓國經濟는 3次의 5個年計劃을 推進하는동안 급속한 成長을 이룩하였는데 鉦工業, 特히 製造業部門의 成長에 의하여 主導되었다. 이와같은 成長의 背景에는 大量의 資源需要가 뒤따랐는데, 1965 ~ 72年의 期間에는 年平均 資源需要 增加率이 26.5%로서 같은 期間의 年平均 經濟成長率 10.3%보다 훨씬 높다.

이와같은 成長과 資源需要와의 相關趨勢는 經濟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앞으로 長期間繼續될 것으로 展望되며, 따라서 資源需要問題의 重要性도 더욱 커진다.

이와같은 資源需要의 增加는 産業構造가 高度化되고 資本集約化함에 따라 더욱 增大된다. 一般的으로 産業構造가 高度化되어야 總生産의 增加를 뒤받침할 수 있게되는데 한편으로 그것은 生産過程의 迅速化를 의미하며 이것은 生産에 소요되는 中間財의 需要를 增加시킨다. 우리나라의 1970年의 産業聯関表에 의하면 中間需要比가 40.2%, 中間投入比가 45.7%로서 60年의 35.4%와

39.4%에 比하여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表 3> 經濟成長과 資源需要

(1965 ~ 1972)

	期間中增加倍数	年平均增加率(%)
G N P	2.0	10.3
製造業成長	3.6	19.6
總資源消費	5.2	26.5
輸入資源	4.9	25.7
總輸出	9.3	39.3

資料：長期資源對策委員會

<表 4> 中間需要比와 中間投入費

(單位：%)

	中間需要比	中間投入比
韓國 1960	35.4	39.4
1970	40.2	45.7
日本 1970	50.4	52.9
台灣 1969	39.9	46.3

資料：韓國，日本，自由中國의 産業聯関表

또한 우리나라의 總輸入을 用途別로 分類해 보면 1970年度에 있어 全体の 67.8%가 中間需要에 應答되었고 消費와 投資를 最終需要에는 각각 10.6%와 21.6%가 使用되었다. 뿐만아니라 全國民經濟의 成長을 위해 投入된 總資源이 年間 26.5%씩 增加되고 그 중에서 輸入資源은 25.7%씩 增加되었으므로 總資源增加分의 97%가 輸入에 依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製造業部門의 높은 經濟成長으로 大量의 資源需要가 유발되고 主要産業의 높은 海外依存度가 또한 原資材 輸入을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經濟의 對外依存度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는 GNP의 輸出入依存도 趨移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1960년에는 16.7%에 불과하던 것이 1973년에는 71.5%로 늘어났으며 이 중 輸出依存도가 33.3%, 輸入依存도가 38.2%인 것이다.

특히 最近에는 重化學工業의 開發에 따라 資源需要는 더욱 격증되며 이 중에서도 石油, 鐵鋼比 등의 需要가 크게 增加될 展望이 다.

政府의 計劃에 따르면 6大重化學工業의 製造業에서의 比重이 1972年の 35.2%에서 1981년에는 51.0%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호프만(W. Hoffmann)의 第3段階를 초과하는 重工業國家로 成長할 計劃인 것이다.

더구나 重化學工業은 原資材를 大量으로 消費한다는 것이 産業의 特徵의 하나이다. 1970年の 産業聯関表에서도 重化學工業의

<表 5 >

年度別輸出入依存度

(單位 : %)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1	1972	1973
輸出依存度	4.1	6.1	6.8	11.9	15.2	16.5	17.8	22.6	33.3
輸入依存度	12.6	17.0	13.9	20.4	26.8	26.2	29.1	28.2	38.2
輸出入依存度	16.7	23.1	20.7	32.3	42.0	42.7	46.9	50.8	71.5

註 1) 1970年不變市場 價格에 依함.

2) 1973年은 推定值임.

資料 : 韓國銀行 國民所得年報

中間投入比는 平均 70.2%로서 全産業의 45.7%보다 월등히 높다.

뿐만아니라 重化學工業은 中間投入중에 서로 加工原資料보다 天然 資源을 中心으로한 基礎原資料의 投入比重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點에서 볼때 重化學工業의 推進過程에는 原資材 需要의 急增이 豫想되며 또한 現在와 같은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投入構造下에서는 海外資源의 導入도 急激히 팽창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重化學工業에 所要되는 資源의 安定的供給問題는 重化學工業 推進에 있어서도 核心的인 課題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1) 에너지 資源

우리나라의 에너지需要는 1962년에는 無煙炭換算 20,212千% 이던것이 1972년에는 43,636千%로 約 2.2倍의 增加를

보였다.

에너지種類別로는 油類轉換策에 따라 石油需要가 가장 커서 1,930千ㄱ에서 22,776千ㄱ로 무려 11.8배가 늘었으며 石炭은 1.7배, 水力은 1.9배 신탄은 25%의 減少를 보여 거의 石油消費의 增加에 依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結果 1962년에는 總에너지消費中 薪炭이 51.9%, 石炭이 36.9%, 石油는 9.5%에 불과했으나 1972년에는 石油가 52.2%, 石炭이 28.3%, 薪炭이 17.9%의 構成比로 바뀌었다. 따라서 에너지에 있어 現在나 또는 將來에 있어서도 가장 重要한 것은 石油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石油需要의 增大에 따라 原油輸入을 급격히 늘어났으며 1964년에 503千ㄱ을 導入했던 것에 比하여 1973년에는 14,082千ㄱ로서 約 28.倍의 增加率을 記錄했다. 이에 따른 外 負擔도 1964年の 13,282千\$에서 1973년에는 277,388千\$로서 20.9배나 增加되었으며 1973년에는 總輸入 4,241百萬달러의 16.5%를 原油導入에 使用한 셈이다.

앞으로도 石油類에 對한 需要는 重化学工業爲主의 成長計劃에 따라 더욱 增加될 것으로 보이나 그 增加率은 顯著히 둔화시킬 展望이다. 商工部의 展望에 따르면 1972 ~ 76년에는 年平均 17.1% 增加되나 1977 ~ 81년에는 11.8%로 점차 減少시킬 計劃인 것이며, 1964 ~ 73年間の 年平均 35.0%에 比하면 顯著한 鉉化인 것이다. 이것은 國際石油價格의 大幅引上과 함께 國內賦存資

<表 6 >

1次에너지 消費構成

(單位：無煙炭換算%)

	總에너지		石 炭		石 油		薪 炭		水 力	
	數量	%	數量	%	數量	%	數量	%	數量	%
1962	20,212	100.0	7,449	36.9	1,930	9.5	10,489	51.9	344	1.7
1964	22,231	100.0	9,642	43.4	2,139	9.6	10,083	45.4	367	1.7
1966	25,602	100.0	11,886	46.4	4,192	16.4	9,041	35.3	483	1.9
1968	30,357	100.0	10,654	35.1	10,084	33.2	9,164	30.2	455	1.7
1970	38,876	100.0	11,933	30.7	18,011	46.3	8,335	21.4	597	1.5
1972	43,636	100.0	12,366	28.3	22,776	52.2	7,824	17.9	670	1.5

註 1) 無煙炭 1kg의 發熱量 5,100 Kal 基準

資料：商 工 部

<表 7 >

年度別原油導入現況

	數 量 (%)	金 額 (千달러)
1964	502,831	13,282
1966	1,356,802	30,287
1968	4,934,525	53,398
1970	8,914,854	125,320
1971	11,548,907	173,989
1972	11,772,744	206,272
1973	14,081,774	277,388

資料：貿易統計年報 (SIJC.3310)

源의 最大限의 開發을 前提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年の 石油類需要는 48,070千kl에 達하여 1972年の 13,702千kl 3.5倍이며 에너지 全体에서의 比重은 68.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에너지資源의 海外依存이 날로 深化되고 있는것은 不可避할 것이다.

政府는 油類需要의 增大에 대비하여 73年現在 395千BPSD의 精製施設能力을 81년에는 3.2倍 增大된 1,255千BPSD로 대폭 확장시킬 計劃이며, 이에따라 前述과 같이 原油所要量도 擴大되므로 原油의 安定的 供給을 模索하기 위하여 精製部門에 對한 産油國의 投資를 유치하고 原油供給源의 多角化 및 石油資源開發에 對한 國際協力을 促進하는 등의 計劃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中東産油國들이 石油禁輸는 해제되었으나 그들의 生産費減縮이라는 基本方針은 계속될 것이므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原油供給이 物量的으로 充分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慢性的인 石油不足은 經濟各部 內에 걸쳐 影響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적인 바와같이 原油導入價格의 引上이 外資負擔을 加重시키게 됨은 말할 必要도 없다.

1964年以後 1970년까지 우리나라에 導入된 原油價格은 계속 下落勢를보였던 것인데 71년부터 다시 上昇하기 시작하였고 73年의 大幅引上을 겪게되었던 것이다.

1964년에 原油導入價格은 바렐당 1.62달러이었으나 70년에는 1.39달러로 0.23달러 14.2%가 低下되었었다. 그러나 1971年

에는 70年보다 0.34달러 上昇한 1.73달러, 72年에 다시 0.17달러 上昇하여 1.9달러로 되었고 73年 9月에는 2.7달러에 이르렀으며 同年10月 中東戰爭後 5,176달러로 급증하고 12月 23日에 11,651달러로 上昇되었다.

이미 原油導入額의 実績은 言及하였거니와 導入量과 導入價格의 폭증으로 導入을 위한 外資支出은 엄청나게 增加될 것으로 보인다. 72年에는 2億여달러이던것이 73年에는 2億7千7百萬달러로 計上되어 原資材 25個品目 總輸入額 36億2千3百萬달러의 34.5%에 達하는 規模이다.

石炭의 開發도 石油波動以後 급속히 서둘러지고 있으나 恒久的으로 主油從炭을 뒤바꿀 수 있을만한 比重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無煙炭生産은 1966年の 煙炭波動이 있기까지는 거의 每年 10%以上 生産增加를 記錄해왔으나, 政府의 油類轉換政策으로 1958年과 69年에는 급격한 減産을 보였으며 1973年에 들어 石炭産業保護策에 따라 生産量이 增加되어 13,571千톤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無煙炭의 需要展望은 1972년에는 12,324千톤이었으나 1981년에는 16,968千톤에 達하여 각각 1972~76년에는 年平均 4.7%, 77~81년에는 年平均 2.4%의 需要增加率을 豫想하고 있다. 그러나 總 에너지중에서 石炭이 차지하는 比重은 1972年の 28.3%에서 1981년에는 20.1%로 減少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2) 鉍物資源

우리나라의 鉍業은 賦存鉍物資源이 貧弱할 뿐아니라 1960年代의 經濟開發過程에서도 國內産業과 연관시켜 資源産業으로 充分히 開發하지 못하고 國內産業用 資源은 海外에 依存하고 國內生産鉍物은 原鉍石으로 海外에 輸出하는데 그쳤으므로 相對적으로 停滯狀態를 免하지 못하고 있었다. 74년부터 世界의 資源波動과 함께 開發이 서둘러지고 있으나 埋藏資源이 不足하므로 크게 期待되지는 못한다.

특히 重化學工業이 育成되면서 鐵鋼工業이 무엇보다도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1.2次 5個年計劃 期間에도 鐵鋼製品에 對한 需要는 亂目할 만큼 增大되었었다. 지금까지의 需要를 보면 圧延鋼材가 62年の 229千噸에서 72년에는 1,280千噸로 5.6倍 늘었고 周段鋼品은 3.84千噸에서 63.7千噸로 16.7倍나 되었으며 이에 따라 生産도 크게 늘었다. 이와같은 鐵鋼製品의 需要의 增加에 따라 그 原材料인 銑鐵, 鋼塊 및 半製品등에 對해서도 높은 需要增加를 초래했으나 製鐵施設의 末備로 大部分을 外國에서 導入하였다. 銑鐵生産이 不足한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古鐵輸入도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다.

政府는 1973 ~ 81년까지 鐵鋼材의 國內需要가 年平均 17.6% 增加할 것으로보고 1981년에는 6,589千噸에 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鐵鋼材需要의 增加에 따라 古鐵과 鐵鉍石의 需要도 대폭 늘어날 것이다. 浦項綜合製鐵이 이미 가동됨에 따라

鉄鉍石의 国内消費量은 크게 늘어날 것이며 1981년에는 20,400千%가 所要되나 国内生産은 그 9.8%인 2百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表 8 >

鉄鉍石需給計劃

(單位：千%)

	供給計劃	国内生産	輸 入
1973	1,400	650	750
1975	1,951	900	1,051
1977	4,420	1,200	3,220
1979	12,410	1,500	10,910
1981	20,400	2,000	18,400

資料：商 工 部

다음에 各種産業의 基礎原資材로서의 主要 非鉄金屬의 需要趨移를 보면 1965 ~ 72년에 있어 年平均 銅은 28.6% 鉛은 15.1% 亞鉛은 10.4%씩 增加되었다. 그 동안은 国内製鍊施設의 不足으로 每年 相当量의 非鉄金屬을 輸入하였는데 全体의 需要에 对한 輸入의 比率은 1972년에 있어 銅이 20.3%, 鉛이 39.5%, 亞鉛이 40.5%를 차지하였다. 특히 非鉄金屬鉍石의 需給狀態을 보면 1972年の 경우 銅鉍石의 国内供給은 所要量의 約 30%에 不過했고 나머지는 外國에서 輸入되었다.

앞으로 銅銻石에 대한 需要는 重化学工業 推進과 함께 長項製鍊 所의 施設擴張, 大單位 銅製鍊所의 建設등으로 급격히 늘어날 展 望이다

(3) 農林水産資源

그 동안 工業化政策의 推進으로 經濟의 量的規模는 擴大 되었으나 農林水産業은 相對적으로 低調狀態를 免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후 지금까지 수차례 걸친 食糧増産計劃에도 不拘 하고 食糧不足狀態를 免하지 못하여 每年 相當量의 食糧을 海外 에 依存하였으며 또한 原棉, 原糖, 原木등의 輸入量도 해마다 增加 되고 있다. 農林水産資源의 増産을 위한 投資는 巨額의 資本과 회임期間이 길고 資本生産性이 낮아 다소 不利한 점도 있으나 食 糧의 基本的自給과 一部 主要基礎原料의 増産을 위하여 重要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表 9 >

糧穀導入量과 自給率

(單位: 千噸)

	糧穀生産量	導 入 量	需 要 量	自 給 率
1960	5,272	468	5,740	91.8 ^(%)
1962	5,423	603	5,922	91.6
1964	7,066	915	7,981	88.5
1966	7,568	525	8,093	93.5
1968	6,857	1,497	8,354	82.1
1970	7,476	2,115	9,591	77.9
1971	7,274	2,883	10,157	71.6
1972	7,208	3,191	10,399	69.3

資料: 農水産部

最近에는 人口의 增加와 1人當 消費量의 增加에 따른 糧穀需要의 급격한 增加에 比하여 農業生産의 制約性때문에 이를 따르지 못하여 自給率이 점차 減少되고 있다. 더우기 1969年부터는 主要穀物의 播種面積도 減少되고 있어 앞으로 糧穀의 單位面積當 生産量의 顯著한 增加가 없이는 食糧需要의 增大에 対処할 수 없는 実情이다.

最近 全世界的으로 食糧危機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食糧自給率의 向上은 매우 重要한 課題가 아닐수 없다. 世界的 食糧危機는 우선 短期, 中期, 長期의 세가지 側面에서 高찰된다.

短期的으로는 食糧의 在庫가 바닥난 것이다. 유엔에서는 1973年 美國, 中東 및 東南아시아, 南美등을 食糧危機地帶로 선정했는데 이는 異常氣候에 의한 凶作때문이다. 다행히 美國은 豊作이 되어 短期的危機를 면할 수 있었다.

만약 世界的인 凶作이 2年만 계속하면 在庫에 의한 救濟에 限界性이 생긴다. 그동안 小穀의 過剩在庫에 의하여서도 凶作이 1年만 더 계속되면 解決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短期的食糧問題는 凶作뿐 아니라 政治的紛爭도 생각해야 한다. 局地戰爭이나 港灣스트라이크라도 생기면 國際的인 去來가 停止된다. 지난번 브라질의 大豆는 豊作이었으나 港灣施設의 貧弱으로 出荷가 充分히 進展되지 못하였다.

다음 中期的인 問題는 肉類, 魚類등 蛋白質需要의 急증과 이에 對한 資源不足, 耕地面積의 限界性등을 들수 있다. 더우기 飼料不

足이 대단히 큰 壁에 부딪치게하고 있다. 開發途上國은 今後, 開發이 進行됨에 따라 生活水準 上昇으로 牛乳, 乳製品이나 肉類의 需要가 擴大될 것인바 이의 擴大再生産에는 時間이 걸리므로 供給 不足問題가 생긴다.

이와같은 世界的食糧問題는 現實的으로 需給事情의 晝박을 초래하고 그 結果 72年부터 國際穀物價格은 급등하기 시작하여 73년에는 世界的凶作과 함께 60 ~ 100 %의 폭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72년에 糧穀輸入을 위하여 外資 3億1千萬달러를 使用했으며 이러한 추세로 食糧을 輸入하다 보면 머지않아 5億달러를 上廻하게 될것이 展望된다. 이미 30 %를 넘고있는 食糧의 輸入依存은 世界食糧事情의 惡化로 量的인 確保의 곤란과 外資負擔의 過重으로 어떻게든지 食糧의 自給을 꾀하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비록 低生産性이라해도 農業에 對한 投資를 增大하여 土地生産性を 높이는데 모든 힘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나. 資源問題에 對한 南北韓의 立場

北韓은 GNP 推計方式과 産業分類方式이 모두 우리와 差異가 있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어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可能的한 범위내에서 北韓의 工業構造를 檢討해보면 이미 1956년에 社會 總生産中에서 工業의 比重이 40.1 %를 차지하였고 1956년에는 64.2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工業構造의 內容에 있어서도 重工業政策을 推進한 結果 輕工業에 비하여 重工業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높다. 대체적으로 現

在까지의 南北韓의 工業構造의 特徵을 대비하면 輕工業部門에서는 北韓은 지극히 미약한 狀態이므로 南韓이 절대적으로 優위에 있으나 重工業은 北韓이 더 發達되었다. 그러나 北韓은 重工業에 있어 精油工業과 같은 近代的인 産業이 發達되지 못하였고 鐵鋼生産은 南韓보다 앞서있으나 우리도 綜合製鐵工場을 建設하였으므로 점차 重工業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工業資源面에서 南韓보다 유리할 뿐아니라 그 동안에도 鉍業開發을 工業生産에 先行시켜야 한다는 政策方向을 유지하였으므로 鉍業生産이 월등히 優位에 있다. 이는 地下資源이 工業生産을 위한 原料供給源이 된다는 點에서 強調되어, 왔고 특히 北韓은 共產圈의 特徵인 封鎖經濟를 強力히 추구해왔기 때문에 原價를 考慮하지 않고 地下資源의 開發에 주력했다.

이것은 그동안 開放經濟를 指向하였던 우리의 經濟보다 커다란 制約要因이었으며 自由貿易을 통한 世界經濟의 發展動向에 대해서도 逆行해왔던 것이 分明하다. 그러나 最近에는 世界經濟가 自由貿易主義에서 保護貿易主義로 逆行하고 資源내셔널리즘이 強化됨에 따라 資源이 없는 우리는 開發에 있어 어려움이 加動되고 있으나 北韓에는 그러한 問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北韓의 鉍業은 对内工業原料를 充足시킬뿐 아니라 그동안 鉍產物 輸出이 外資獲得에 主要原泉이 되었던 것이다. 現在와 같은 資源難 時代에는 北韓의 鉍業資源開發政策의 推進이 우리보다 有利한 立場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동안의 北韓의 鉍業政策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輕金屬生産에 注力하여 알루미늄과 같은 것을 自体的으로 解決한다. ② 鉸山機械生産工場을 設立하여 鉸山機械의 供給을 円滑히 한다. ③ 製鍊所를 近代化하여 半製品 또는 完製品을 海外에 輸出한다. ④ 探查事業을 強化하고 專門家의 養成에 주력한다.

한편 南北韓의 鉸産資源埋藏量은 다음 表와 같은데 鐵, 銅, 鉛, 亜鉛, 鎳 등 重要한 鉸産物이 北韓에 더 埋藏되어 있다.

<表 10 >

南·北韓鉸山物推定埋藏量

(單位:噸)

鉸産物	推 定 埋 藏 量			比 率	
	南 韓	北 韓	合 計	南 韓	北 韓
金	1,000	1,000	2,000	50	50
銀	2,500	5,000	7,500	33	67
銅	50,000	1,500,000	1,550,000	40	60
亜鉛	400,000	400,000	800,000	50	50
鐵	200,000,000	1,300,000,000	1,500,000,000	21	79
滿 俺	500,000	200,000	700,000	71	29
重 石	200,000	500,000	700,000	40	60
鎳	300,000	1,200,000	1,500,000	20	80
몰리브덴	6,000	2,000	8,000	75	25
鉛	210,000	290,000	500,000	35	65
鱗狀 黑 鉛	1,600,000	2,000,000	3,600,000	44	56

項 目 鉍產物	推 定 埋 藏 量			比 率	
	南 韓	北 韓	合 計	南 韓	北 韓
土 狀 黑 鉛	3,000,000	3,000,000	6,000,000	50	50
石 綿	20,000	13,000	33,000	60	40
蠟 石	1,000,000	125,000	1,125,000	80	20
滑 石	600,000	600,000	1,200,000	50	50
螢 石	1,800,000	500,000	2,300,000	78	22
明 반 石	40,000,000	-	40,000,000	100	0
高 嶺 土	2,000,000	2,000,000	4,000,000	50	50
石 灰 石	10,000,000	20,000,000	30,000,000	33	67
矽 石	10,000,000	6,600,000	16,600,000	62	38
江 矽 石	50,000	30,000	80,000	62	38
모 나 즈 鉍	20,000	46,000	66,000	40	60
베 리 움 鉍	500	600	1,100	46	54
갈 코 늬 鉍	20,000	50,000	70,000	28	72
無 煙 炭	280,000,000	2,240,000,000	2,520,000,000	11	89
有 煙 炭	5,000,000	280,000,000	285,000,000	2	98

資料：大韓鉍業振興公社刊，「鉍業年鑑」，1960年版。

지금까지 北韓經濟는 平和産業보다 軍需産業을 위주로 했고, 따라서 重工業化를 추진해왔었다. 그 結果 重工業比重이 美国, 日本 등보다 더 높아진 것인데 이는 한편으로 輕工業이 전혀 開發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封鎖的經濟體制下에서 工業化의 水準도 事實상 低位에 있었기 때문에 鉍産物原料가 自給的段階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最近에는 東西의 解氷무드에 따라 北韓도 점차로 貿易을 擴大하려고 있으며 自由先進國으로부터 施設財의 導入등을 서둘러 있으므로 점차로 封鎖經濟의 桎梏을 벗겨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封鎖體制下의 自給自足原則에 따라 工業生産의 原料인 鉍業開發에 힘쓴 것은 한편으로 世界資源을 利用한 것 보다는 工業化에 있어 非能率的이기는 하였으나 最近과 같은 資源難時代에 견디는 힘은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封鎖的인 工業化로는 國際的인 近代工業化 水準에 달아가지는 못한다는 重要한 問題를 남기고 있다.

北韓이 最近에 와서 國際經濟에의 潮流에 따르고 싶어도 輸出基盤을 얻는 産業의 뒷받침이 없어 곤란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國際經濟力의 劣勢로 輸出伸張力을 強力히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그만큼 모든 部門에 制約要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鉍業部門은 重工業의 原料供給과 輸出을 위하여 주로 石炭과 鐵鉍石探掘에 치중해 왔다. 勿論 北韓의 이러한 鉍業開發 冶金工業, 金屬工業, 機械工業등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동시에 戰略輸出品目으로서 外貨獲得에도 기여하였으나, 原鉍石의 輸出이 國際收支上 有利하지 못한 것은 다 아는 일이다.

石炭과 鉍探掘을 부문 별로 볼때 먼저 石炭은 目標年度인 1976.

년에 5千~5千3百萬%의 生産을 指向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石炭鉷業이 電力과 함께 에너지産業의 基軸을 이루고 있다. 특히 重工業政策과 併行 또는 이보다 오히려 先行하면서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石炭開採은 第1次에너지源의 唯一한 要素이다. 우리가 油類에 依存하는 石油化學工業에 비중을 크게하고 있는것과는 전혀 대조적이다. 다하는 바와같이 石炭에 依存하는 重工業基盤이 油類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弱性を 면치못하며 여기에서 北韓의 工業化의 限界性이 나타난다.

勿論 石油波動後에 油類價格의 昂등등으로 우리가 石油化學工業을 開發함에 있어 中전보다 莫大한 外資負擔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石油化學工業의 비중을 擴大하고 石炭보다 油類依存體制를 계속할 것임은 이러한 理由때문이다.

다음에 鐵鉷石探掘에 있어서는 年産 650萬%의 茂山鉷山과 75萬%의 德峴鉷山을 精鉷可能規模로 확충시키고 德成, 西海里 松炭鉷山の 新規開發을 추진하며 价川, 龍源鉷山을 120萬%의 鐵鉷生産基地로 만들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北韓의 工業化方向과 鉷業開發에 대해 重點적으로 略述하였으나 最近의 國際經濟動向과 관련하여 이의 展望을 다시 高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의 重工業化는 輕工業의 發達을 무시하고 偏重되었기 때문에 産業部門間의 聯関效果가 적다. 그동안 이러한 偏重된 開發이 可能했던 것은 北韓의 工業化가 平和産業이 아닌 軍需産業을

위주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偏重된 工業化方式에는 限界性이 있으며 앞으로는 輕工業의 擴大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둘째 封鎖體制下에서 原料의 自給度를 높이고 있으나 最近 貿易 擴大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國際競爭力의 脆弱性으로 큰 애로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資源내셔널리즘과 貿易에 있어서 保護主義가 강화될 수록 이러한 封鎖적이었던 共產圈國家들에게 相對적으로 有利하게 만들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自由貿易主義下에서 開放體制를 指向하고 1973년에는 貿易依存度가 70%以上에 이르기까지 對外依存을 擴大시키면서 工業化와 高度成長을 추구해 왔었던 것이며 最近에는 資源難과 保護貿易主義의 대두로 다소 애로에 직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에 있어서 世界貿易을 계속 擴大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保護主義의 強化도 限界性에 직면할 것이다.

世界經濟는 궁극에 있어서 國際產業主義가 존속되며 各國은 比較 優位產業의 對外的進出이 권장되므로서 世界經濟와 各國經濟의 發展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北韓의 鈹業開發은 우리보다 資源產業開發에 있어 有利한 側面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根本적으로는 地下資源의 埋藏量이 많기 때문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네째로 北韓의 資源開發中 農業部門의 脆弱性은 우리보다도 심각

하다. 1969년에 있어北韓 農業生産량은 工業生産량의 35%에 불과하여 穀物生産의 不足으로 每年 外穀을 導入하고 있다. 即 1967년에 10萬5千屯, 68년에 16萬9千屯, 69년에 9萬5千屯등 每年 外穀을 導入하고 있다.

다. 國際經濟動向과 南北韓關係

최근의 國際經濟動向은 이미 說明한 바와같이 各分野에 걸쳐서 많은 問題點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國際主義 또는 世界主義라고 말할 수 있는 인터내셔널리즘이 점차 후퇴하고 國家主義 또는 國民主義라고 말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이 強力히 대두되고 있다는 點이다.

世界貿易의 증진은 世界經濟의 繁榮에 기여하여 各國은 國際分業의 原理에 입각해서 比較優位에 있는 產業에 專門化함으로써 보다 效率的인 經濟成長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國際分業과 世界經濟의 繁榮은 自由貿易主義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 바탕이 흔들리고 保護貿易主義가 우선되고 있다. 이에 對한 說明은 더 必要치 않겠으나 이러한 世界經濟의 動向은 開發途上에 있는 우리나라에 적지않은 影響을 줄 것이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動向은 分斷國으로 하여금 國民主義 또는 民族主義에 입각한 새로운 對話와 交流의 必要性을 充分히 제기한다고 본다.

北韓은 지금까지의 經濟的失政과 특히 對外交流를 통한 그들의 矛盾이 들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사실상 對外交流가 없이는

經濟成長에도 限界性을 들어낼 것이므로 언젠가는 交流의 必要性을 인식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最近 東歐圈에 있어서의 對西方交流의 증대와 심지어 資本的交流의 증대에 대해 이미 보아온바와 같으며 共產圈과 自由世界와의 貿易이 擴大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北韓經濟도 封鎖體制를 脫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北韓에서도 最近에는 開放體制에의 指向이 다소 고려되고 있으나 그들의 政治體制로 보아 기껏해야 物物交換形態의 바타貿易에 局限될 것이고 우리와 같은 一般貿易의 擴大가 이루어지리라고는 期待되지 않는다.

한편 南韓에서는 最近 國際經濟에 있어 資源내셔널리즘의 대두, 國際通貨의 不安定, 保護貿易主義등의 여러가지 要因들로 因해 開發途上國에서 입는 많은 애로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은 世界全般的으로 겪는 共通된 現象일뿐아니라 恒久的인 것이 아니고 一時的인 現象이므로 北韓에 對比하여 根本적인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世界經濟의 保護主義的 傾向에도 限界性이 있을 것이다. 各國은 國家의 利益을 追求하기 위하여 保護政策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相互間의 貿易減退와 그로인한 國際分業의 利益을 追求할 수 없는 矛盾에 직면하게 되므로 保護主義를 脫皮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한 新國際라운드가 그와 같다고 생각한다. 74년에는

어떤 具體的인 方案이 提起될 것으로 期待되고 있으며 그 동안 한편으로 地域經濟化의 傾向, 南北問題등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면서도 역시 自由貿易은 追求되어야 할 根本理念이라고 생각한다.

北韓에서도 최근 國際舞臺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점차 國際潮流에 휩쓸리고 國際與論과 國際的感覺에 順응하게 된다면 南北對話에 對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南北對話는 北韓의 一方的忌避에 의하며 進展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동안 國際情勢의 變動에 順응하고 또한 國際經濟動向에 적응하려면 새로운 姿勢의 變化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